

# 柔道

2026 봄호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judo.sports.or.kr



vol. 145

특집  
로드 투  
아시안게임 2026

국내대회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결산

인터뷰  
김민정·심재윤·문준서가 그리는 유도의 미래  
창단팀 탐방  
유도의 새 꿈, 매트 위에 띄우다  
남해고와 계성여고 유도부



대한유도회  
Korea Judo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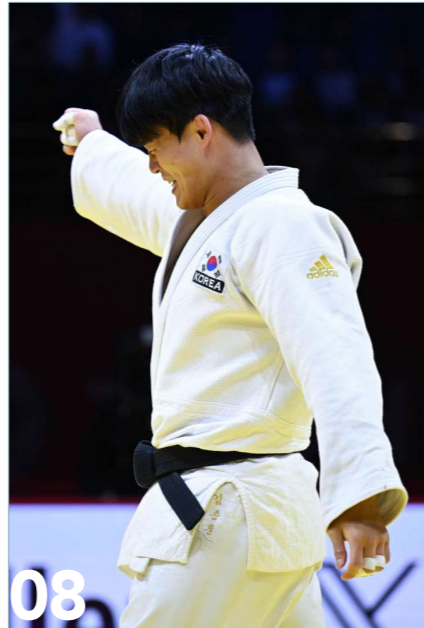


9 772380 125002  
ISSN 2586-1256

145

# CONTENTS

2026 SPRING  
VOL. 145



2026 SPRING  
KOREA JUDO ASSOCIATION  
VOL.145

발행일  
2026년 3월 30일 | 통권 145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17호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 특집

02 로드 투 아시안게임 2026

## 국제대회

04 2026 파리 그랜드슬램  
08 2026 타슈켄트 그랜드슬램

## 국내대회

10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16 청춘양구 2026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18 제3회 사천우주항공컵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 2026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 인터뷰

22 세계 무대 향한 당찬 첫발, 경기대 김민정  
24 18세 소년 유도 괴물, 심재윤(주산산업고)

## 현장을 가다

26 '익산으로, 순천으로' 미래 국가대표 동계 훈련 리포트  
28 2026 전국 유도 심판 및 지도자 / 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 창단팀 탐방

30 남해고·계성여고 유도부

## 유망주를 찾아서

34 '2025시즌 전관왕' 경민고 문준서

## 마니아열전

36 국내 최초 유도 웹툰 『한판』 백시우 작가

## NEWS IN JUDO

38 유도 뉴스 및 유도인 동정  
43 유도 행정 정보 안내

## RECORD

46 유도기록실  
50 2026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 다시 뛰는 한국 유도, 아시안게임 남녀 동반 금메달을 메쳐라!

2026년 한국 유도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동반 금메달을 거머쥐는 것이다. 직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에 그쳤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파리 올림픽 이후 세대교체를 완수한 한국 유도가 진정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고교생 신화 이현지부터 대들보 김민중까지, 2000년대생들의 기세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IJF 제공



## 로드 투 나고야... 대표팀 여정은?

대표팀은 지난 2월 파리 그랜드슬램을 시작으로 긴 여정에 돌입했다. 국내 전지훈련 이후 출전한 두 차례의 그랜드슬램에서 기량을 점검했다. 특히 김찬영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남자 -66kg급의 새로운 메달 자원을 확인하는 수확을 거뒀다.

한국 유도는 3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해 아시안게임과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정예 멤버 구성을 마쳤다. 당장 4월 16일부터 중국 오르도스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각국의 전력을 가늠할 중요한 전초전이다.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잠시 주춤했던 김민중, 이현지 등 간판스타들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반동을 보여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후 대표팀은 두산베, 아스타나, 울란바토르 등 세 차례 IJF 그랜드슬램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여름에는 유럽 전지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국제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유도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두 달여간의 담금질을 마친 뒤 대표팀은 9월 마침내 결전지인 아이치·나고야로 향한다.

## 매트를 달굴 기대주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14명의 전사는 현재 각 체급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최정예 멤버들이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선수는 최종량급의 이현지와 김민중이다. 두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넘어 2028 LA 올림픽까지 세계 정상을 지킬 재목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부상 여파로 고전했던 김민중에 대해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은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상대 선수들에게 기술적 단조로움을 간파당하고 있다. 특히 반대 기술에 취약점을 노출했는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당황시킬 수 있는 반대 기술과 정교한 연결 동작의 다양성이 필수적”이라며 변화를 주문했다. 남자 -81kg급의 이준환과 여자 -57kg급의 허미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파리 올림픽 이후 부상으로 주춤했던 두 선수는 최근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다. 특히 허미미는 장기인 ‘굴히기’가 한층 진화했다는 평가다. 정성숙 여자대표팀 감독은 “단순한 굴히기가 아니라 상대의 탈출 경로까지 차단하는 응용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경량급의 이하림(남자 -60kg급), 신예 장세윤(여자 -57kg급) 등이 언제든 깜짝 메달을 안겨줄 준비를 마쳤다.

## 키워드: 남자는 기술의 다양성 여자는 굴히기

그간 한국 유도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것은 단연 ‘굴히기’였다. 정성숙 감독 부임 이후 여자 대표팀은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행히 이현지를 비롯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교해지며 해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정 감독은 “기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을 마무리 짓는 자세가 갖춰져야 실질적인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자 대표팀의 과제는 ‘단조로움 탈피’다. 기술이 다양해져야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황희태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배수진을 치며 기술의 외연을 넓히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도자와 선수 모두가 이번 대회를 한국 유도 재도약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 한국 유도의 경쟁력을 위하여

스포츠의 본질은 명확하다. 탄탄한 기본기와 아낌없는 지원이 따를 때 비로소 성적이 나온다. 국가대표팀의 경쟁력 강화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조지아와 우즈베키스탄이 국제 교류를 통해 자신들만의 컬러를 구축하며 강국으로 부상했듯, 한국 유도 역시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한유도회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전략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단순한 훈련 지원을 넘어, 선수들이 국제무대의 트렌드를 익히고 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전지훈련과 교류의 장을 대폭 넓히고 있다. 중주국 일본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이 예상되지만, 협회와 현장이 원팀이 되어 쌓아온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노력은 반드시 성과로 직결될 것이다. 아이치·나고야의 매트 위에서 한국 유도가 다시금 포효할 준비를 마쳤다.

# 환희와 침묵 사이

## 2026 유도의 서막, 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2026년 유도 시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파리 그랜드슬램’이 지난 2월 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총 10회로 예정된 그랜드슬램 시리즈의 첫 단추를 꿰는 이번 대회에 한국은 선수 25명을 포함해 총 3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결과는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세계 최정상급의 무게를 실감한 에이스들의 고뇌가 파리의 매트 위에서 교차했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IJF 제공



### ‘첫 그랜드슬램 입상’

#### 김찬녕, 국제무대 트라우마 털어낸다

남자 -66kg급의 김찬녕(하이원)이 생애 첫 그랜드슬램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찬녕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이자 지난해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다케오카 다케시(일본)를 만났다. 경기 시작 40초 만에 유효를 따내며 기세를 올렸으나, 종료 1분 44초를 남기고 안오금퓌기에 이은 누르기 한판을 허용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비록 패했지만 결승까지의 행보는 압도적이었다. 64강부터 준결승까지 사이먼 줄루(잠비아), 미카엘 알로(마다가스카르), 우누르바트 안산도르지(몽골), 겐토쿠 카이리(일본), 파샤예브 루슬란(아제르바이잔) 등 각국 강호들을 차례로 연파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김종훈이 금메달로 깜짝 스타의 등장을 알렸다면, 올해는 김찬녕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했다.

김찬녕은 청소년 시절부터 타고난 유도 감각으로 국내 무대 정상급에 군림해 왔다. ‘언제 어떻게 해야 점



김찬녕

수가 되는지 아는 유도’를 한다는 평과 함께 유도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유독 국제대회 입상 문턱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이는 자신감 결여와 트라우마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은메달이 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다.

황희태 남자유도대표팀 감독은 “그동안 국제대회 경험은 많았지만 뚜렷한 성적이 없어 메달 결정전만 되면 위축되곤 했다”며 “초반 기세가 좋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심리적으로 흔들려, 평소 쓰지 않던 무리한 기술을 시도하다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여름 칭다오 그랑프리 3위 입상으로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고, 이번 파리에서의 은메달을 통해 비로소 한 단계 올라섰다”고 전했다.

### “여전히 세계 정상급 레벨이긴 한데..”

#### 김민중이 한 단계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김민중(양평군청)은 +100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초반 기세는 매서웠다. 1회전에서 중국의 리하이양을 배대뒤치기 절반으로 꺾은 김민중은 이어 조지아의 사바 이나네슈빌리를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거침없이 준결승에 올랐다. 그러나 준결승에서 일본의 나가노 칸타에게 안뒤축걸기 절반을 내주며 아쉽게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패배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 김민중은 메달을 향한 간절함으로 매트 위에 섰다. 그 염원은 결과로 증명됐다. 김민중은 이라클리 디미트라시빌리(조지아)를 상대로 절묘한 발다리걸기 유효승을 거두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중은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최종량급에서 세계 정상급 입지를 굳건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대 선수들의 철저한 ‘현미경 분석’에 전력 노출되면서,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시급해진 시점이다. 황희태 감독은 “현재 몸이 덜 만들어져 움직임이 다소 둔화된 상태”라며 컨디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미 분석을 당하고 있어 공격이 간파당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쪽 업어치기와 메치기 등 기술의 외연을 넓혀 더 날카로워져야 한다”며, “올해 열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6 세계선수권대회 전까지 이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중



이하림

시상대 턱밑에서 멈춘 분전,

이하림과 장세운의 5위

대회 첫날 김찬영의 은메달과 이틀날 김민종의 동메달 외에 추가 메달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메달 쟁탈전을 벌인 선수들의 투혼은 빛났다.

남자 -60kg급 이하림(국군체육부대)은 4회전에서 딜쇼트 할마토프(우크라이나)에게 누우면서던지기 절반을 내주며 패자전으로 밀려났다. 패자전에서 반칙승을 거두며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으나, 이스라엘의 아이작 아쉬피즈에게 허벅다리 걸기 절반을 허용하며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여자 -52kg급 장세운(KH필룩스) 역시 메달권 진입 직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장세운은 1회전에서 나오미 반 크레블(네덜란드)에 발뒤축후리기 한판승, 2회전에서 आयु미 레이바 산체스(스페인)를 상대로 지도 3개를 끌어내며 순항했으나, 3회전에서 아리안 토로 솔레어(스페인)에게 업어치기 유효패를 당했다. 패자전에서 파티오나 카사피(코소보)에 안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며 다시 기회를 잡은 장세운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분전했으나, 결국 한판을 허용하며 최종 5위로 대회를 마쳤다.

금메달을 수확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국 대표팀의 이번 파리 원정은 성적 면에서 분명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르며 전력 운용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황희태 남자대표팀 감독은 “부상자 속출로 대회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몸 관리가 시급하다”며, “3월에 있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부상을 털어낸 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

세계 챔피언 보유하고도...

여자 대표팀의 '노메달' 아쉬움

기대를 모았던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여자 +78kg급에서 세계선수권과 그랜드슬램 우승 경력을 가진 정상급 선수를 두 명이나 보유하고도 거둔 결과라 아쉬움이 더욱 컸다.

+78kg급 세계 챔피언 이현지(용인대)는 4강에서 세계랭킹 4위 줄리아 톨로푸아(프랑스)에게 누르기 유효를 내주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일본의 아라이 마오에게 발다리후리기 유효를 허용해 최종 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같은 체급의 김하운(안산시청) 역시 고배를 마셨다. 2회전에서 호아키나 실바(앙골라)를 허벅다리걸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합친 한판으로 꺾으며 손조롭게 출발했으나, 3회전에서 리아 폰타인(프랑스)에게 업어치기 되치기 유효를 허용하며 탈락했다. 김하운은 이후 패자전에서도 반등하지 못하며 상위 라운드 진출이 무산됐다.



이현지



장세운



# 자부심으로 일궈낸 값진 동메달 2개

## 2026 타슈켄트 그랜드슬램 대회 리뷰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2026 타슈켄트 그랜드슬램이 열렸다. 이번 대회는 남다른 의미를 남겼다. 5명의 지도자와 9명의 선수가 오직 유도에 대한 열정만으로 '자비 출전'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 선수단은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세계 무대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글. 이상준 기자 사진. IJF 제공

“대어를 낚을 뻔했다”

세계 1위에 맞선 김종훈

남자 -90kg급에 출전한 김종훈(양평군청)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레벨에 올라섰음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셀리디스 테오도로스(그리스)를 꺾고 3위를 차지한 그는 대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선수 중 한 명이었다.

특히 세계랭킹 1위이자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조지아의 영웅' 라샤 베카우리와의 8강전은 두고두고 아쉬울 법했던 경기였다. 김종

훈은 경기 초반 시원한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며 대어를 낚는 듯했으나, 안오금뚝기 한판패를 당하며 무릎을 꿇었다. 현장에서 김종훈을 지도한 양평군청 조구함 감독은 “그동안 늘 고전하던 베카우리를 상대로 처음으로 기술 점수(유효)를 따냈다. 승리를 눈앞에 뒀던 만큼 아쉬움도 크지만, 패배 직후에도 멘탈을 회복해 동메달을 획득한 정신력은 높이 평가한다”고 총평했다. 지난해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랭킹을 111위에서 40위권까지 끌어올린 김종훈은, 최근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의 부진을 딛고 이번 대회를 통해 완벽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았다. 조구함 감독은 “지금의 성실함에 1~2가지 변칙 기술만 보완한다면 국제 경쟁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김종훈의 잠재력을 신뢰했다. “다음 목표는 금메달”이라는 그의 각오는 단순한 포부가 아닌, 이미 완성된 철학의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김종훈



한주엽

-100kg급 안착 중인 한주엽

태극마크가 보인다

남자 -100kg급의 한주엽(하이원유도) 역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사두르 디노프(바레인)에게 패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타리나 시메온(네덜란드)을 유효승으로 제압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한주엽에게 이번 메달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체급 변경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입상했기 때문이다. 본래 -90kg급에서 활약하던 그는 지난해부터 -100kg급으로 체급을 올린 뒤 국내 대회에서 승승장구해 왔다. 한주엽은 “체급을 올린 뒤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빠르게 적응 중이다. 국제대회에서 첫 성과를 내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 2026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결승에서 체급 강자 한경진(양평군청)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한 한주엽은, 이번 성적으로 인해 올해 열릴 세계유도선수권대회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발탁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다가올 2차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반드시 태극마크를 지키겠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

# 아이치·나고야행 마지막 관문

## 2026 유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결산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에서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개최됐다. 3월 16~17일 개최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통해 +100kg급 김민중과 -81kg급 이준환 등을 포함한 남자 선수 7명과 -57kg급 허미미, +78kg급 이현지를 비롯한 여자 선수 7명 등 총 14명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선발됐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 기대주를 넘어 아이콘으로, 이현지가 증명한 이름값

한국 여자유도의 기대주 이현지(용인대)가 완벽한 세대교체를 알렸다. 이현지는 여자 +78kg급 결승에서 2022 항주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2024 파리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하운을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하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국내의 무대에서 여러 차례 맞붙어 온 라이벌답게 두 선수의 맞대결은 시작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실제 경기에서도 매트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이는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아시안게임 출전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선수는 목표를 위해 서로를 반드시 넘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이현지의 패기가 김하운의 노련함을 앞섰다. 이현지는 경기 종료 2분 10초를 남기고 안다리 기술로 유효를 얻어낸 데 이어, 1분 48초 전에는 되치기로 절반을 획득했다. 이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넘어진 김하운을 그대로 눌러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일찌감치 주니어 무대를 평정한 이현지는 시니어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해부터 각종 타이틀을 휩쓸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는 이번 우승을 더해 선발전 5연패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라이벌 김하운을 상대로 거둔 완벽한 설욕이라는 점도 의미가 깊다. 지난해 6월 IJF 세계선수권대회 당시 이현지는 김하운에게 반칙패를 당하며 동메달에 머물렀고, 우승컵은 김하운의 차지였다. 하지만 그해 12월 도쿄 그랜드슬램 결승에서 승리하며 흐름을 바꾼 이현지는 이번 2차 선발전에서도 승기를 굳히며 생애 첫 아시안게임행 티켓을 따냈다.

이현지는 “국가대표 타이틀을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단순히 선발에 만족하지 않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 LA 올림픽 입상을 목표로 자만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 끝이라 말할 때 시작된 반등, 경량급의 희망이 돌아왔다

남자유도 경량급의 강자 이하림이 화려한 재기의 서막을 올렸다.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이어 이번 2차 선발전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완벽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이하림은 남자 -60kg급 결승에서 황해성(용인대)을 상대로 지도 3개를 끌어내며 지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며 한국 경량급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이하림은 최근 2~3년간 부상 여파로 부진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기량이 하락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연이은 선발전 우승을 통해 특유의 노련미를 과시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김원진 은퇴 이후 뚜렷한 후계자를 찾지 못했던 남자 경량급은 이하림의 부활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황희태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은 “기량 면에서 대표팀 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하며, “부상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과거의 전성기 기량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 증명된 클래스, 파리의 환희는 아이치·나고야로 이어진다

이번에도 이번은 없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했던 김민중(양평군청)과 이준환(포항시청), 허미미, 김지수(이상 경북체육회)가 나란히 체급 정상에 오르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남자 +100kg급 결승에 나선 김민중은 전 소속팀 동료 이승엽(KH그룹유도단)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지도승을 거뒀다. 상대의 끈질긴 공세에 잠시 고전하기도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 특유의 노련미와 기술력이 빛을 발했다. 김민중은 준



김민중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발전 명단(14명)

- ▲ 남자
- 60kg급 이하림(국군체육부대)
- 66kg급 김찬녕(하이원유도)
- 73kg급 안재홍(남양주시청)
- 81kg급 이준환(포항시청)
- 90kg급 김종훈(양평군청)
- 100kg급 한주엽(하이원유도)
- +100kg급 김민중(양평군청)
- ▲ 여자
- 48kg급 정수진(웅인대)
- 52kg급 장세운(KH그룹유도단)
-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
- 63kg급 김지수(경북체육회)
- 70kg급 김혜미(광주교통공사)
- 78kg급 김민주(광주교통공사)
- +78kg급 이현재(웅인대)

결승에서 백두산(한국체대)을 허벅다리걸기로 제압하는 등 이날 치른 5경기 중 4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남자 -81kg급 이준환 역시 위기의 순간 더욱 빛나는 운영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선부터 폭발적인 업어치기를 앞세워 결승에 안착한 그는,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신에 심재운(주산산업고)을 마주했다. 경기 초반 상대의 기습적인 발 기술에 한판을 내줄 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절반으로 정정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칫 흐름을 잃을 법한 순간이었지만 이준환은 평정심을 유지했다. 노련하게 경기를 조율하며 신에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결국 경기 막판 지도 3개를 끌어내는 반칙승으로 왕좌를 지켜냈다.

여자 -57kg급 허미미 또한 부상을 털어내고 완벽한 반등을 알렸다. 특유의 영리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 장기인 '굳히기' 전략을 앞세워 준결승에서 김주희(울산광역시유도회)를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는 신유나(제주특별자치도청)와 연장 사투 끝에 조르기 한판승을 기록했다. 한동안 어깨 수술 여파로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으나, 지난해 11월 아바다비 그랜드슬램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며 완전히 본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김지수(-63kg급)의 압도적인 기량이 돋보였다. 김지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하며 전국체전에 이은 '전 경기 한판승' 기록을 완성,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다. 한편, -52kg급 장세운(필룩스 유도단) 역시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전승을 거두며 체급 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

### 매트 밖에서도 빛난 유도 정신, 전복 차량 시민 구하다 보령시장, 국군체육부대 유도단에 표창장 수여

국군체육부대(상무) 유도단 선수들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14일, 대회 참가를 위해 보령으로 향하던 상무 유도부 선수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선수들은 즉시 차량을 멈춰 세우고 현장 수습에 나섰다. 선수들은 침착하게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2차 사고를 방지했고, 사고 차량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며 응급조치와 함께 119

에 신고했다. 이어 사고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도로에 흩어진 파편을 수거하는 등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선수들의 용기 있는 대응에 김동일 보령시장은 대회 3일 차에 대회장을 직접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를 전했다. 김 시장은 “대회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이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3월의 보령,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열렸다. 누군가에게는 건재함을 증명하는 수성의 무대였고, 누군가에게는 판을 뒤흔들 반란의 시작점이었다. 5일간 이어진 치열한 메치기 끝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설 최종 주역들의 면면이 보령의 매트 위에서 완성됐다.

+78kg급 우승자 이현지



김하윤(왼쪽)과 이승진



김종훈



한주엽(왼쪽)과 한승주



## 병오년의 시작을 알리다!

### 청춘양구 2026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현장

유도인들의 봄은 한겨울 양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된 '청춘양구 2026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는 매서운 추위를 녹이는 열기로

가득했다. 유치부 고사리손부터 노련한 일반부 동호인까지,

전국에서 모인 1,500여 명의 동호인이 매트를 메우며

병오년 새해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글: 홍성한 기자 사진: 양구군 제공

#### 국토의 배꼽 양구, 유도의 메카로 거듭나다

강원도 양구는 이제 유도인들에게 '악속의 땅'과도 같은 곳이다. 매년 초 이곳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는 한 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양구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완벽한 대회 준비는 선수들이 오직 매트 위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리며, 생활체육으로서 유도가 가진 저변이 얼마나 탄탄해졌는지를 다시금 실감케 했다.

#### 하남 미사에서 피어난 국가대표 꿈을 키우다

경기도 하남 미사에 위치한 '안철웅 유도관'은 시즌의 포문을 여는 '청춘양구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에서 개인전 종합우승과 단체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초등부의 강자로서 면모를 보였다. 꾸준히 이어온 성과만큼이나 이곳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안철웅 관장의 확고한 지도 철학에 있다.

안 관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승패라는 결과보다 인성과 예절, 그리고 실전 경험을 초등부 교육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 지도하는 아이들의 실력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초등부 시절보다 뛰어나다고 믿으며 지도하고 있다"며 제자들에 대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 결실로 이어져, 초등학생 때부터 안 관장과 함께 땀 흘린 -45kg급 윤준혁(보성중)과 -52kg급 권세현(서울체중)이 2025 청소년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거뒀다.

현재 80여 명의 제자와 매일 호흡을 맞추는 안 관장은 엘리트와 생활체육 대회를 구분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무대에 제자들을 세운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출전 기회를 열어주어 스스로 자신감을 쌓게 돕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며 현장을 누비는 이유를 밝혔다. 2007년 실업유도최강전 우승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인 그는 "제자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날까지 페이스메이커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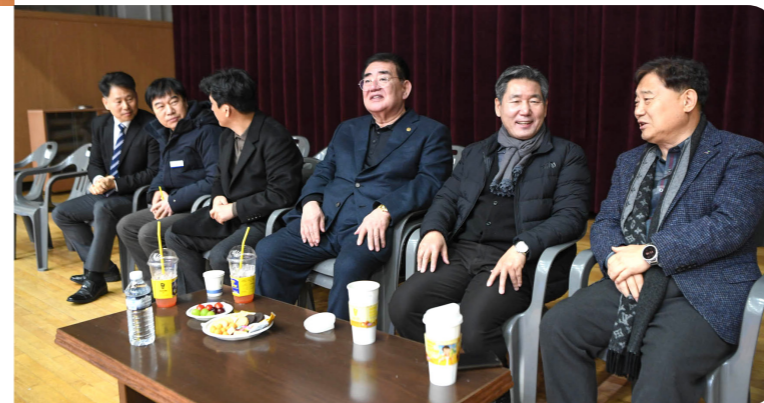
####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생일 선물'

코리아탑 유도 멀티짐에게 이번 대회는 기록 이상의 기억을 남겼다.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2개(유치부 +25kg급 양예준, 여초부 3학년 +48kg급 박솔민)와 동메달 2개(남초부 5~6학년 +65kg급 이우진, 남초부 5~6학년 -65kg급 박시울), 그리고 단체전 우승(강승유, 허천진, 문현진, 이병찬, 박시울, 이우진)과 우수지도자상(김보은 관장)까지 거머쥐며 2026년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번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성적표 때문만은 아니다.

대회를 앞두고 아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관장님 생일 선물로 우승 트로피를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시킨 것도,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오직 스승을 향한 존경과 애정에서 시작된 이 순수한 다짐은 선수단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마침 이번 대회 기간은 김보은 관장의 생일과 맞물려 있었다. 아이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화려한 선물보다 정직한 땀방울의 결과로 자신들의 진심을 증명해 보였다. 결국 시상대 위에서 들어 올린 우승 트로피는 단순한 성적의 증표가 아닌, 아이들이 준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되어 스승의 품에 안겼다. 코리아탑 유도 멀티짐이 보여준 이 따뜻한 풍경은 기술적인 성장을 넘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빛어낸, 유도 정신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나흘간의 열전은 막을 내렸지만, 양구에서 시작된 유도인들의 기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26년 병오년, 매트 위에서 시작된 이 뜨거운 에너지가 올 한 해 대한민국 유도계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



# 영하 20도 동장군도 막지 못한 유도인들의 포효

## 제3회 사천우주항공컵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수도권과 남부 지방을 가리지 않고 몰아친 영하 20도의 기록적인 강추위도 유도인들의 뜨거운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경남 사천에서 제3회 사천우주항공컵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열렸다. 전국 규모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유도 동호인과 가족들이 집결했다. 경기장 밖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예열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이번 대회를 향한 이들의 간절함과 열기를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글. 이상준 기자 사진. 각 팀 제공



이슬

### 동탄유도체육관 이슬의 화려한 피날레

이번 대회 가장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은 동탄유도체육관 소속의 여중부 -52kg급 이슬이었다. 이슬은 1, 2회전에서 시원한 한판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고, 3회전과 8강전에서는 각각 안시우(대전한성유도관)와 안지원(GP유도멀티짐소하)을 상대로 노련한 '지도' 싸움을 벌이며 영리하게 승리를 챙겼다.

백미는 결승전이었다. 반석유도관 김시연과 맞붙은 이슬은 절반 2개와 지도 3개를 주고받는 혈투 끝에 연장전에 돌입했다. 체력이 고갈될 법한 상황에서도 이슬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스승인 이선형 관장의 전술 지시에 맞춰 시도한 굳히기가 종료 1분 26초 전 한판으로 연결되며 대망의 금메달과 함



께 여중부 최우수 선수상(MVP)을 거머쥐었다.

이번 우승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슬의 생활체육 '고별전'이기 때문이다. 이슬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남양주 금곡고 유도부에 들어가 본격적인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는다. 이선형 관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켜본 제자다. 유도에 최적화된 체형과 끈기, 특히 발 기술이 탁월하다"며 대견해했다. 과거 이준환 등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지도자인 이 관장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좌절하지 않고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길 바란다"며 제자의 새 출발을 축복했다.

### 사천에서도 이어진 안철용유도관의 독주

전국 유소년 유도의 강자, 안철용유도관의 기세는 사천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청춘양구 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획득했던 이들은 일주일 만에 무려 8개의 금메달(총 11개 부문 입상)을 쏟아내며 최다 금메달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치부 +25kg급 손예성을 시작으로 남초부 1~2학년 -30kg급 이승윤, -35kg급 서지울, 남초부 3~4학년 -30kg급 강유준, -35kg



급 이규하, 남초부 5~6학년 -65kg급 김민건, 그리고 여초부 4~6학년 -36kg급 이나윤까지 초등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특히 유도 입문 불과 3개월 만에 여중부 -70kg급 정상에 오른 이채은(경화여중)의 활약은 현장에서 큰 화제가 됐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들과의 격차를 무색하게 만든 그녀의 '전 경기 한판승'은 생활체육 유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 방탄유도관과 당진 유도의 매서운 저력

방탄유도관의 선전도 돋보였다. 남초부 3~4학년 -43kg급 김태한, 여중부 -57kg급 정은율, 여고부 -78kg급 서지원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 연령대에 걸친 고른 전력을 과시했다. 전통의 강호 당진 유도 역시 저력을 보였다. YK유도클럽의 남초부 1~2학년 -25kg급 김도윤, +35kg급 박서우가 초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하창범이 남중부 -90kg급에서 중량급의 파워를 보여주며 금메달을 메쳤다. 또한 용인대청룡유도관의 공지우가 여중부 -47kg급에서 우승을 추가하며 당진 유도의 탄탄한 저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 축제로

한편, 이번 대회는 남·여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총 22개 부문으로 나눠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치열했던 단체전에서는 한판 유도관 대구점(남자일반부), 서부유도관(여자일반부), 안산유도체육관(남자고등부), 이송원유도관(여자고등부), 서울마이티체육관(남자중학부), 대전한성유도관(여자중학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용한유도클럽 남창점은 남녀 초등부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과 유도인들이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사천시를 생활체육과 지역 특색이 결합한 도시로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柔)



## 생활체육 유도인들의 워너비

### 2026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남긴 것들

2026 만세보령머드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가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승패를 떠나 뜨거운 우애를 나누는 선수들부터 4전 5기 끝에 첫 금메달을 거머쥔 동호인들까지. 유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된 이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글·사진. 서호민 기자

#### 매트 위에서 핀 우정

#### “먼 훗날, 국가대표로 다시 만나자”

대회 2일 차, 남자초등부(5~6학년) -30kg급 결승전이 끝난 직후 매트 위에는 묘한 감동이 흐르고 있었다. 승리한 이규하(안철용유도관)와 패한 김지훈(용한유도관)이 서로를 뜨겁게 껴안았기 때문이다. 패자는 승자의 실력을 인정했고, 승자는 패자의 손을 들어주며 예우를 갖췄다. 갈린 것은 승패뿐, 두 소년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그 자체로 우승감이었다.

경기를 마친 김지훈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대를 향한 존중을 표했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도 기량이 정말 뛰어나다. 힘이 좋고 틀어잡기를 워낙 잘해서 대단한 선수라는 걸 느꼈다.” 이에 이규하 역시 “형이 봐준 거다(웃음). 업어치기와 발 기술을 다양하게 구사해서 상대하기 정말 까다로운 상대였다”라며 수줍게 화답했다.

시상식을 기다리는 동안 두 소년은 영광없는 10대의 모습으로 돌아



이규하, 김지훈 (2)



이용빈



권연서

갔다. 끝말잇기를 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은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격돌했던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두 소년은 롤 모델마저 ‘한 판승의 사나이’ 이원희로 같았다. 이규하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영상을 보고 국가대표의 꿈을 키웠다”고 말했고, 김지훈 역시 “기술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잡기 상태에서 중심축을 역이용해 넘어뜨리는 유도 기술이 멋지다”며 눈을 반짝였다. 유도 선수로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둘은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큰 무대에 올라서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먼 훗날, 국가대표가 되어 꼭 다시 만나자!”

#### 땀방울로 빚어낸

#### 생애 첫 금메달의 단맛

첫 우승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다. 전국 각지의 유도 동호인들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는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한 이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여자중학부 -47kg급의 권연서(유사사유도관)는 정하은(김재범유도관)과의 연장 혈투 끝에 소중한 유효를 따내며 정상에 올랐다. 유도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것이다.

평소 과묵한 성격의 권연서도 우승 확정 순간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첫 우승이라 정말 행복하다. 관장님의 지도 아래 갈고닦은 소매업어치기가 잘 통한 것 같다”고 기뻐했다. 그를 지도한 박주연 관장은 “일주일 내내 도장에서 살 정도로 지독한 노력파이자 승부욕이 강한 선수다. 자기만의 확고한 스타일로 이번 대회 우승을 이끌어냈다”라며 제자의 성장을 대견해했다.

청년부 -66kg급의 이용빈(분당유도관)은 ‘3전 4기’ 끝에 찾아온 소중한 우승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청년부 -66kg급 결승에서 조수민(화정유도관)과 6분여 동안 혈투를 펼친 끝에 지도 3개를 빼앗아 승리했다. 그는 “만세보령배에 어느덧 네 번째 출전이다. 첫 출전 때 1회전 탈락, 두 번째는 8강, 세 번째는 은메달이었다. 이번 네 번째 도전이 우승할 차례라고 믿었는데 드디어 첫 금메달을 따냈다”며 벅찬 소회를 전했다.

이용빈은 생활체육유도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과 야망도 크다. 그는 “다음 목표는 나만의 유도관을 차리는 것이다. 유도가 너무 좋아서 업을 삼고 싶을 정도다. 3년 뒤를 생각하고 있다. 지켜봐달라”라는 호기로운 포부를 전했다.

#### 보령이 준비한 정성,

#### 생활체육 유도의 ‘봄’을 열다

매년 3월, 보령은 한 해의 생활체육 유도를 시작하는 설렘으로 기지개를 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만세보령머드배’는 이제 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 꼭 한 번 서보고 싶은 ‘워너비 무대’로 자리 잡았다. 쾌적한 경기 시설과 원활한 운영, 높은 접근성 덕분에 유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믿고 찾는 대회”라는 정평이 나 있다. 특히 대회의 중심인 보령종합체육관은 최신식 시설을 갖춰 선수들이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중년부 +100kg급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건 정완준 씨는 “조용철 대한유도회 회장의 고항이기도 한 이곳 보령에서 전국의 유도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에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며, “질서 있는 운영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생활체육 유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평했다.

대회의 여운을 완성하는 것은 단연 보령의 풍성한 ‘맛’이다. 승패를 떠나 이곳을 찾은 모든 유도인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돌아가길 바라는 진심, 그 정성이 만세보령머드배를 대한민국 최고의 생활체육 축제로 만들고 있다. ☘

# “나를 믿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 -52kg 김민정(경기대), 세계 무대 향한 당찬 첫발



‘경량급 기대주’ 김민정(경기대)에게 국가대표 타이틀은 그가 꾸준히 성장해온 선수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결실이다. 대학 입학 당시만 해도 ‘미완의 대기’에 가까웠지만, 쟁쟁한 국가대표 선배들 사이에서 강점들을 흡수하며 한 발씩 앞서 나가고 있다. 목표도 확고하다. 매 경기 적극적으로 임해 자신의 존재감을 넓히는 것, 그리고 2년 뒤 2028 LA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는 것이다.

글. 홍성한 기자 사진. 문복주 기자

국가대표 1, 2차 선발전에서 모두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회를 돌아본다면?

지난해 1차 선발전에서는 준결승에서 아쉽게 패했고, 올해 2차 선발전은 부상으로 인해 기권해야 했다. 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팔꿈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었던 점이 못내 아쉽다.

두 차례의 선발전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

실업팀 선배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다만 굳히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메치기 기술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

팔꿈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 한 달가량 치료에 전념하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다른 부상은 없다.

지난 동계 훈련 당시 굳히기 기술 보완에 공을 들였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굳히기에 아예 소질이 없었다. 하지만 선수촌에 다녀오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 보완 운동에 매진했다. 굳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끈질김이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공격적인 스타일로 끝까지 기술을 구사하려 노력한다.

국가대표 타이틀을 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올해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운동했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어쨌든 첫 국가대표 타이틀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처음 경험해 본 진천선수촌 생활은 어땠나?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처음 입촌했을 때는 낯설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적응했고 선배들도 잘 챙겨주셨다. 무엇보다 운동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았다. 전문적인 몸 관리는 물론 웨이트트레이닝장의 다양한 기구를 활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어 큰 도움이 됐다.

태극마크를 달고 나서는 첫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첫 경험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지만, 최대한 평소 하던 대로 임할 생각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했던 기술만큼은 꼭 실전에서 구사해보고 싶다.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스스로 믿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야 기술도 제 성능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우선 당장 눈앞의 세계선수권대회를 잘 치르고 싶다. 나아가 2년 뒤 열릴 2028 LA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더 치열하게 훈련에 매진할 생각이다. 국제대회에 최대한 많이 참가해 꾸준히 포인트를 쌓을 계획이다.

롤 모델이 있다면?

학교 선배인 정보경 언니를 존경한다. 업어치기와 어깨로메치기 등 기술적인 면에서 닳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다. 언니를 볼 때마다 나 또한 부지런히 갈고닦아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포부를 들려달라.

처음 출전하는 세계선수권대회인 만큼 철저히 준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 이번 대회가 국제무대 경험을 쌓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 믿는다. 🌸

# 결승전의 눈물

## ‘18세 소년’ 심재윤의 다음을 향한 자양분

2026 유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81kg급 결승의 종료 부저가 울리던 순간. 보령체육관의 매트 위에는 18세 소년 심재윤(주산산업고)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우승의 문턱에서 멈춰 서야 했던 아쉬움도 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승리를 향한 집념과 스스로를 담질해온 인고의 시간이 녹아 있었다. 비록 이번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내어주었으나,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이름표를 단 이 당찬 유망주의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했던가. 좌절을 자양분 삼아 다시 도복 끈을 조여 맨 18세 유망주, 심재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얼마 전 열린 2차 선발전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결승에서 판정 반복의 아쉬움 속에 우승 문턱에서 멈춰 섰다. 고교생으로서 대단한 성과였지만, 본인은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나간 일이니 괜찮다. 판정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내 실력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준환 선수를 상대로 막판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위장 공격 판정을 받았다. 우승 기회를 놓친 것은 분명 아쉽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정진해야겠다는 확실한 자극을 얻었다.

1차 선발전 동메달에 이어 2차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차례의 선발전을 치르며 느낀 점이 있다면?

끈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체력을 더 강화해야 함은 물론, 힘과 기술적인 면에서도 보완할 점을 찾았다. 소득이 있다면 패기와 자신감을 갖고 임했을 때 성인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2차 선발전 이후 주변의 관심과 격려도 많았을 것 같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결승까지 진출해 입상한 것만으로도 잘했다는 위로를 많이 받았다. 특히 조용철 대한유도회장님께서 “아직 고등학생이니 언젠가 만개할 날이 올 것”이라며 “부담 갖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덕담해주신 것 이 큰 힘이 됐다.

지난해 고교생 신분으로 최연소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본인의 유도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된 순간은 언제인가?

작년 전국체전이다. 이전까지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작년 전국체전 금메달을 기점으로 성장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매번 패했던 천적 김동건(경민고) 선수를 1회전에서 한판승으로 꺾으며 얻은 자신감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아직 ‘심재윤’이라는 선수를 낯설어할 사람들도 많을 거다. 독자들에게 본인을 직접 소개해달라.

나는 ‘노력형 선수’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하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선수에 가까웠다. 하지만 남들보다 배로 노력했다. 쉬는 날에도 거르지 않고 개인 체력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 튜브 당기기에 매진했다. 그 지독한 ‘노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유도 선수로서 본인이 가진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기술적으로는 ‘발다리 걸기’에 가장 자신 있다. 설령 상대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발다리 걸기를 시도할 각도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전세를 뒤집어 상대를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은 불발됐지만,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현재 한국체대에서 대표팀 선배들과 훈련 중이며, 3월 말에는 진천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단질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직 어리고 기회는 많다. 그동안 같고 닳은 것들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다. 강점인 주특기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잡기 기술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음 선발전에서는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조준하고 있을 텐데, 향후 목표는?

2년 뒤 열린 LA 올림픽 국가대표 승선이 최종 목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올해를 잘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은 올해 열린 전국 대회에서 전관왕을 차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대중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실력과 행보를 통해 유도라는 종목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



# 대한민국 유도 육성 시스템의 허리, 동계 합동훈련 현장을 가다



유도 미래국가대표팀이  
지난 겨울 차가운 겨울바람을  
가르며 뜨거운 담금질을 했다.  
이번 동계 훈련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다. 국가대표의 산실인  
진천을 향해 익산과 순천을 잇는  
육성 벨트를 가동한 것. 유년기의  
재능이 성인의 기량으로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돕는 한국 유도의  
'성장 로드맵' 현장을 살폈다.  
글. 이상준 기자 사진. 대한유도회 및 각 팀 제공

**익산에 모인 국가대표 후보선수,  
성인 레벨을 향한 도약**  
대한민국 유도의 허리를 책임질 차세대 주역들  
은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겨울을 보냈다. 지  
난 1월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 '유도 국  
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은 후보선수단  
64명을 포함해 전국 실업·대학팀 선수 등 600  
여 명의 유도인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훈련으로  
치러졌다. 2년 연속 익산에서 개최된 이번 훈련  
은 규모 면에서나 질적 면에서나 역대 최고 수  
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후보선수단은 인원 구성을 기존 55  
명에서 64명으로 확대하며 내실을 기했다. 지  
도자 8명과 유망주 56명이 한 팀이 된 이들은  
전국 실업·대학팀 선배들과 직접 몸을 맞대며  
실전 감각을 익혔다. 이곳의 주된 과제는 후보선  
수단의 주를 이루는 고교 유망주들과 성인부 사  
이의 기술적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김헌태 전임감독은 고등부에서 성인 무대로 넘  
어가는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굳히기'와 '잡기  
및 메치기 연계 기술' 전수에 심혈을 기울였다.  
고등부 수준에서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이나 주



특기 하나라도 승리가 가능하지만, 성인 무대는  
철저한 잡기 싸움과 빈틈없는 방어력이 전제된  
다. 후보선수들은 실업팀 선배들과의 스파링을  
통해 성인 레벨의 거친 힘을 몸으로 익혔고, 메치  
기 이후 굳히기로 이어지는 정교한 연쇄 동작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스스로의 기술 체계를 업  
그레이드했다.  
김 감독은 "성인 선수들과 맞서야 하는 고등부  
선수들에게 굳히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필수  
적인 무기"라며, "대학 진학 예정자들에게는 성  
인 무대 공략을 위한 잡기 및 메치기 연계 기술  
을 중점적으로 전수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  
록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익산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유망주들이 '고교  
생 유도'를 벗고 '성인 유도'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수 전담지도자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파트너와  
대련하며 실전 감각을 쌓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  
게 짚었다.  
그는 "이번 훈련은 유망주들이 자신의 기량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생소  
한 상대를 마주했을 때의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다. 유소년기에 습득한 이 폭넓은 경험은 훗  
날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상대할 수 있는 든  
든한 밑거름이 된다. 이는 체력 강화와 함께 체계적  
인 인재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며 한국 유도의 경  
쟁력을 뿌리부터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 합동훈련  
유도 꿈나무를 위한 '경험의 토대'**  
비슷한 시기, 전남 순천에서는 한국 유도의 뿌리  
가 될 꿈나무 대표팀과 우수 선수 200여 명이 집  
결했다. 익산이 성인 무대로의 '기술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순천은 유도 선수로서 갖춰야 할 '기  
본기'와 '실전 경험 쌓기'에 초점을 맞췄다.  
꿈나무 대표팀 46명을 비롯해 전국의 유망주들  
이 한자리에 모여 흘린 땀방울은 한국 유도의 기  
초를 다지는 촉매제가 되었다. 임희대 꿈나무선

**단절 없는 기량 향상 로드맵**  
익산과 순천에서 진행된 이번 동계 훈련은 각 훈  
련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  
는 한국 유도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유소년부  
터 성인기까지 단절 없는 성장을 돕는 핵심 고리  
다. 순천에서 다진 기본기는 익산의 심화 훈련을  
거쳐 성인 기술로 완성되며, 이 과정을 거친 선수  
들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  
향한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유소년부터  
성인기까지의 기량 공백을 줄이는 육성 로드맵  
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무대를 준비하는 이번 훈련이 한국 유도의 장기  
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유도의 내일을 설계하다

### 2026 전국 유도 심판 및 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2026 대한유도회 전국 심판 및 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북 구미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전국의 심판과 지도자, 고단 승단 준비자 등 1,300여 명의 유도인이 모여 매트 위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도장 경영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서호민 기자, 구미시 제공

**판정 기준 확립부터 도장 경영의 해법까지**  
이번 강습회는 조용철 대한유도회장, 엄득웅 경북유도회장, 신주호 구미시유도회장 등 유도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전문 선수 지도자와 생활체육 관장이 함께 교육받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도계 전반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중점을 둔 대목은 시합 현장의 판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신 규정 숙지'였다. 정준호 경기위원장이 경기규정을 상세히 짚었으며, 윤현 심판위원장은 실제 경기 영상 분석을 통해 현장

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심판 사례들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3일간의 일정은 체육관 운영과 시합 지도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채워졌다. ▲경기·심판 규정 개정안 ▲금지 약물 관련 반도핑 지침 ▲스포츠 안전 및 응급처치 ▲지도자 윤리 및 인권 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등이 심도 있게 다루이며 교육의 내실을 더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홍보 방안'과 '생활체육 지도자를 위한 소통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일선 관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 “신뢰가 곧 경쟁력”

##### 투명한 유도 생태계 조성 강조

강습회 2일 차에는 유도 대중화를 위한 시스템 체계화 교육이 이어졌다. 연사로 나선 이승원 대한유도회 홍보위원장은 투명한 유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동호인 등록제'와 '인증유도관 제도'의 정착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유도계 일부에서 발생했던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유도회 차원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며, “동호인 등록제와 인증유도관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 운영의 신뢰를 높여야만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도장을 찾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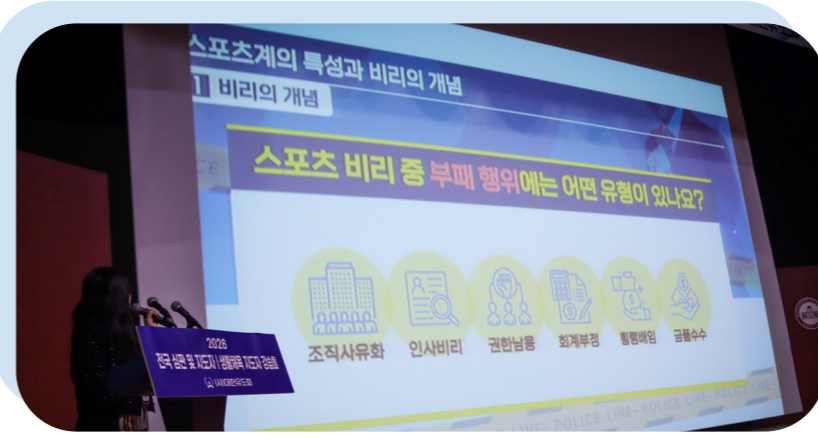
#### “관원 2배 늘리는 실전 전략”, 일선 관장들 큰 호응

도장 경영난을 겪는 지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은 이번 강습회의 핵심 하이라이트였다. 특히 '생활체육 지도자를 위한 소통 전략'과 마지막 날 소개된 'SNS를 활용한 관원 모집 전략'은 홍보에 어려움을 겪던 일선 관장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습회에 참여한 심판과 지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유도관장은 “단순히 운동만 가르치는 시대를 넘어 도장 홍보도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예년보다 다채로워진 프로그램 중에서도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 매우 유익했다”면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 심판 역시 “선배들과 판정 기준을 복기하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 ‘공부하는 유도인’이 만드는 건강한 변화

한편, 이번 행사가 2년 연속 구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에는 김대봉 국제심판(도개고 감독)의 역할이 컸다. 김 감독은 지역과 유도회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뒷받침했다. 김 감독은 “강습회를 지원해주신 조용철 회장님과 구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 교육이 지도자와 심판들의 실력을 높여 유도 저변 확대의 확실한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스포츠 전반에 걸쳐 새싹 선수를 향한 '공부하는 선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지도자와 심판, 선수, 그리고 어린 유망주들까지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 비로소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와 심판이 먼저 배움의 매트 위에 선 이번 강습회는 대한민국 유도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



# 남해고등학교 유도부 창단식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장소 남해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 남해와 부산에 부리 내린 신생 유도부 남해고와 계성여고의 '한판승' 도전기

유도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지난해 말, 경남 남해고등학교와 부산 계성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정식 창단식을 열고 매트 위의 서막을 알린 것이다. 이번 창단은 단순히 팀 하나가 늘어난 숫자의 기록이 아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국가대표'라는 꿈을 향해 달릴 수 있게 된 선수들. 이들의 뜨거운 한판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박상혁 기자, 각 학교 제공

## 대한민국 최남단에 울려 퍼진 희망의 기합 소리 남해고 유도부

대한민국 최남단, 인구 4만의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대한민국 유도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그동안 이곳의 엘리트 유도는 남해여중이 유일한 보루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유망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향하거나, 도복을 벗어야 하는 선택지에 놓여 있었다. 이 절박한 단절의 고리를 끊어내고 등장한 남해고 유도부는 지역 체육계에 내린 가뭄 끝의 단비와 같다. 이 도전의 키를 잡은 이는 김지혜 초대 감독이다. 제주도청과 양주시청을 거친 베테랑 실업 선수 출신인 그는 서울에서의 안전한 삶을 뒤로하고 연구 없는 남해의 매트를 택했다. "지도자라는 꿈은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 직접 팀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갈증이 늘었는데, 남해에서의 제안은 그 꿈을 실현할 운명적인 기회였다"는 그의 말에선 결연함이 느껴진다. 작은 도시 남해에서 선수 수급은 원석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었다. 김 감독은 유도를 접해본 적 없더라도 운동 신경이 좋은 아이들을 찾아 직접 발품을 팔았다. 연계 학교인 남해여중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한 명씩 팀의 퍼즐을 맞춰 나갔다. 현재 12명의 선수단은 엘리트 출신 7명과 생활체육 출

신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장기연과 강민서는 남해여중에서 진학한 사례로, 지역 연계 시스템의 결실을 상징한다. 팀 전체적으로는 초보들이 주축이지만, 이들에겐 남다른 패기가 있다. 현장의 공기도 동계 훈련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타 지역 강호들과의 합동 훈련에서 남해고 선수들은 예상 밖의 기세를 뽐내었다. 김 감독은 "자유 연습에서 타 학교 엘리트 선수들을 상대로 대등하게 맞서며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다음은 김지혜 감독과의 일문일담.

**남해고 유도부가 창단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남해 지역은 그동안 남해여중이 유도 명맥을 이어왔지만, 고등학교 연계 팀이 없어 유망주들이 진학 시기에 큰 진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지역 유도 발전과 선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중, 남해고에서 총대를 멨고 마침내 지난해 말 공식 창단이라는 결실을 봤다.

**초대 감독직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엘리트 지도자는 유도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 현역 은퇴 후 지도자 생활과 도장 운영, 심판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늘 내 팀을 맡아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다. 그러던 중 남해에서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고, 망설임 없이 결심을 내렸다.

**팀 전력과 다가오는 전국 대회에 임하는 각오는?**



주장 이시우를 중심으로 총 11명의 선수가 뭉쳤다. 대부분 늦게 시작한 선수들이지만, 동계 훈련을 거치며 몰라보게 성장했다. 특히 타 지역 강호들과의 합동 훈련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우리는 3월 보령 화장기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무대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어떤 조력자가 되고 싶나?**

체계적인 훈련에 목말랐던 아이들이 만큼,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아이들의 목표 의식이 강하고 학교 지원도 든든해 적응이 빠르다. 특히 꾸준히 운동해온 신입생들의 가능성이 커서 조만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든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 철학은 예의다. 유도를 통해 실력뿐만 아니라 예의와 인성을 배워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소년체전 메달리스트 시절 이후 처음 해보는 인터뷰라 감회가 참 남다르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기분인 동시에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남해고 유도부가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팀으로 거듭나고, 우리 아이들이 유도를 통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여자 유도의 새로운 엔진  
계성여고의 출격**

남해고가 창단할 무렵인 지난 겨울, 부산 여자 유도의 자존심도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때 국가대표 김하운을 배출하며 유도의 심장부로 불렸던 부산은 삼정고 폐부 이후 긴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지역 내 진학 경로가 좁아진



유망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타 시도 전학 시 거쳐야 하는 일정 기간의 행정 절차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성여고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2025년 12월 3일 공식 창단을 알린 계성여고 유도부는 부산 여자 유도의 맥을 잇기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다.

계성여고 유도부 창단의 주역은 이진성 감독이다. 부산 여자 유도의 명맥이 끊기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는 영남상고 시절 은사인 마석항 현 계성여고 교장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다. '무보수 봉사'를 자처하며 배수진을 쳤던 그의 의지는 결국 팀 창단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현재 이진성 감독과 피지민 코치를 중심으로 모인 9명의 선수단은 대학 팀인 동의과학대와 합동 훈련을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학 선수들과 몸을 맞대며 이어가는 강도 높은 훈련은 신생팀인 계성여고가 전국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과정이다. 침체된 부산 유도의 토대가 되겠다는 지도자의 헌신은,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는 선수들의 성실한 훈련으로 증명되고 있다. 다음은 이진성 감독과의 일문일답.

**계성여고 유도부 창단 과정이 궁금하다.**

부산 삼정고 해체 이후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다행히 은사인 마석항 선생님께서 계성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셨고, 2년여간 유도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창단을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다. 내 머릿 속에는 오로지 부산 여자유도를 부흥시킨다는 생각 뿐이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도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팀을 이끌겠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선수단 구성과 훈련 방식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3명과 생활체육 출신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후에는 동의과학대와 합동 훈련을 하며 실전 감각을 익히고, 야간에는 개인 훈련을 진행한다. 아무래도 생활체육 출신 선수들은 아직 기술을 뒷받침할 근력이 부족하다. 올해는 화려한 기술보다 탄탄한 피지컬을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도자로서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가치가 있다면?**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내 나름의 지도 철학이다. 어차피 마주해야 할 승부라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라고 강조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성'이다. 유도만 잘하는 선수는 원하지 않는다. 실력은 언제든지 늘 수 있지만, 인성은 시기가 있다. 훈련량만큼이나 수업 태도와 올바른 성품을 엄격히 강조하는 이유다.

**부산 여자 유도의 부흥이라는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다.**

계성여고 창단이 부산 유도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선수들도 자부심을 갖고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뤄나갈길 기대한다. 나 역시 여자 유도 발전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부산 유도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두 개의 시작, 하나의 꿈**

남해의 끝자락과 부산의 심장부.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팀이 처한 환경도 다르지만, 두 학교의 매트 위에서 피어오르는 땀의 냄새는 같다. 매트 위에 첫발을 내디딘 두 주장의 각오를 들어봤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며 팀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운동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팀원들과 단합하여 우리 학교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유도부를 만들겠다."

남해고 주장 이시우



"TV에 나오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멋있어서 유도를 시작하게 됐다. 중학교 마지막 단체전 경기에서 인상하던 그 찰나의 순간이 여전히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올해 전국대회 입상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 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계성여고 주장 박혜원





문준서

무패 전관왕,  
'괴물'의  
고교 시대가  
열린다

'무패 전관왕'. 이보다 더 강력한 설명이 필요할까. 2025년 남중부 유도계는 문준서(17, 경민고1)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전국대회 12관왕, 중등부 19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쓴 문준서. 대한민국 유도계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그가 이제 더 큰 꿈을 품고 고등부 매트 위로 뛰어들었다. 중등부에 이어 고등부에서도 전관왕을 달성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들어봤다.  
글·사진. 서호민 기자

고교 진학 후 첫 동계훈련입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고등학생이 된 만큼 학교 시스템에 맞춰 적응 중입니다.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라 조금 낯설지만, 형들을 따라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훈련 자체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특히 새벽 훈련을 새로 소화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형들에 비해 아직 힘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경민고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유도 명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꿈의 학교였어요. 과천중 시절 훈련을 오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오승용 감독님께서 잘 지도해주셨던 좋은 기억이 진학 결정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7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모든 면에서 좋아요. 일찍 시작한 덕분에 기본기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고, 경기 경험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관왕 달성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났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좋은 스승님을 만난 덕분입니다. 7살 때부터 10년 넘게 저를 지도해주신 김주유 코치님은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예요. 코치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전관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아직 저만의 확실한 주특기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업어치기를 다양하게 구사하고는 있지만,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강점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요즘은 메치기 같은 큰 기술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평소 롤모델이나 참고하는 선수가 있나요?  
경민고 선배님이신 이준환 선수의 영상을 가장 많이 봐요. 체급과 스타일이 비슷해 배울 점이 많거든요. 특히 잡기 기술을 본받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선배님께서 직접 학교에 오셔서 기술 전수도 해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목표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 1학년이라 큰 목표보다는 적응이 우선이지만, 금메달을 꼭 따보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명문 학교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는다면 중학교 때처럼 12관왕, 19연승 같은 대기록을 다시 한번 써 내려갈 자신 있습니다. 🍀



INSIDER

김주유 코치가 말하는 문준서  
“천재가 아닌,  
스스로를 깰아 만든 ‘괴물’입니다”

과천중 김주유 코치는 문준서를 유도판으로 이끈 장본인이자 최고의 유망주로 길러낸 스승이다. 그는 문준서를 “만들어진 선수”라고 표현한다.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의 문준서를 빚어냈다는 의미다.  
“7살 때부터 지도했으니 아들처럼 키운 셈이죠. 유도의 기초인 구르기부터 시켰으니깐요. 사실 처음엔 신장도 작고 특출나지 않아 ‘이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끈기와 배포가 있었어요.”  
물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춘기 시절,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하며 방향하던 시련도 있었다. 그때 김 코치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힘든 건 한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 간다”는 말로 붙잡았다.  
“치열한 대화 끝에 준서가 그러더군요. ‘운동을 그만두지 못할 거라면, 아예 괴물이 되겠다’고요. 그 시기를 기점으로 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 쉬는 날에도 스스로 웨이트와 유산소 훈련을 챙기기 시작했죠. 성격도 그때부터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김 코치는 제자의 무공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초가 탄탄하고 노력의 가치를 아는 선수가기에 더 큰 무대가 어울린다는 확신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훗날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본인이 자라고 성장한 과천을 환하게 빛내주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독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국내 최초 유도 웹툰 『한판』 백시우 작가**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웹툰이 각광받고 있지만, 이 소식은 신선함을 넘어 놀라웠다.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이 맺히는 '유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웹툰이라니. 백시우 작가의 <한판>은 유도부 내의 치열한 경쟁과 주인공 강연우의 성장을 세밀한 감정 묘사로 그려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재에 분주한 그를 만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유도 웹툰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에 대한 작가의 진솔한 대답을 옮긴다.

글. 서호민 기자



**2008년 베이징의 강렬함, 웹툰 '한판'이 되다**

국내에서 생소할 수 있는 유도 웹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때 유도 동아리에 들어가며 유도를 본격적으로 접했습니다. 직접 해보니 유도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바꾸고 성장시키는 힘이 있더군요.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꿈이었는데, 유도의 매력을 만화로 꼭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한판』이라는 작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작가님에게 유도가 강렬하게 각인된 순간이 있었나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최민호 선수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터진 '한판 승' 안에 유도라는 종목의 압축된 매력이 다 들어있다고 느꼈어요. 그때부터 여러 경기를 찾아보며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나약했던 주인공 '강연우'가 유도를 통해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웹툰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사람은 혼자 성장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상처와 곁핍을 안고 타인과 부딪히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죠. 『한판』은 유도가 성장의 계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물들이 유도를 하며 서로를 알고, 끝내 자기 자신까지 마주하게 되길 바랍니다. 독자분들도 그 과정에서 작은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매트 위의 숨결을 화면에 옮기는 법**

유도 기술을 만화로 구현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도는 익숙한 분들에게는 깊고 매력적이지만,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처음 읽는 독자들도 몰입하게 만드는 일이 늘 숙제죠.

만화는 콘티와 연출, 액션을 끊임없이 수정하며 가장 좋은 장면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유도 경기 장면은 기술의 각도나 타이밍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직접 자세를 만들어보며 확인하곤 합니다. 한번은 작업실 동료와 유도복을 입고 장면을 맞춰보다가 딱딱한 바닥에 그대로 메쳐져 고통에 몸부림쳤던 웃픈 에피소드도 있죠. 몸으로 확인하며 그린 기억이라 더 애착이 갑니다.



**결과보다 과정, 마지막 순간까지 '한판'답게 창작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독자분들께서 "『한판』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말씀해주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작품을 계기로 실제 유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율이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그리는 만화가 누군가의 삶에 실질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 창작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연재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속제는 인물들의 성장을 유도라는 종목을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싶지 않거든요. 한 사람의 삶과 깊은 내면의 감정이 어떻게 유도의 기술, 그리고 시합의 흐름과 연결되는지를 서사로 풀어내는 과정이 늘 어렵습니다. 시합 전개 설계부터 인물의 내면 묘사까지 매 순간이 선택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79화 속 "몸부터 유연해져야 유도가 유연해진다"는 문구가 와닿았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유도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유도는 결과보다 '과정'에 가깝습니다. 어떤 훈련을 거쳤는지, 어떤 시간을 버텼는지 쌓인 끝에 비로소 '한판'이라는 순간이 나옵니다. 수많은 축적 끝에 마지막 순간 크게 터지는 불꽃놀이 같은 존재,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유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판』을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말의 큰 방향은 구상해 두었지만, 아직 완결까지는 갈 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재미있고 『한판』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유도에서 '한판'이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렬한 순간이듯, 이야기 역시 마지막 장면이 독자에게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야 하니까요. 미약하게나마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을 위해 더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주변에도 작품 많이 소개해주세요.(웃음) ㉸

**백시우 작가는...**  
유도를 통해 사람이 단단해지는 찰나의 순간을 그리고 싶은 웹툰 작가다. 현재 네이버 토요웹툰 『한판』을 통해 매트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승부와 뜨거운 성장, 그리고 청춘의 집념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 2026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대한유도회가 1월 23일 오후 1시 서울 올림픽회관 신관 1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9대 임원 선임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감사 결과 등 협회 운영의 주요 사항들이 공유되었다. 이어진 심의에서는 ▲정관 개정 승인 ▲2025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 ▲제39대 집행부 임원(추가) 선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심의 결과, 정관 개정과 전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아울러 임원 및 위원 선임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 제39대 집행부, 제3차 이사회 개최

대한유도회 제39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가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회관 신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36명 중 26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8월 25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 이사회 서면 결의 결과를 비롯해 각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2025년도 기금 과실금 사용 현황, 주요 대회 및 훈련 등 사업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보고된 모든 사항은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심의 안건으로는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안) ▲2025년도 사업 및 결산(안)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기금 과실금 사용 승인 ▲세무상 법인 등록 유형 변경 승인 등이 상정되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대한체육회는 2025년 대한민국 체육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체육 발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한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회에서는 정성숙 유도 국가대표팀 총감독, 김은희 대한유도회 상임심판이 각각 지도부문 최우수상, 심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과 정준호 대한유도회 경기위원장은 각각 공로 부문 및 스포츠가치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지난 3월 13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진행되었다.



### 2026~2027 공인유도복 업체 선정

대한유도회는 향후 2년간 공식 경기에서 착용 가능한 공인 유도복 브랜드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공인기간 2026년 3월 1일~2028년 2월 28일

<b>다오</b> B&B스포츠	<b>IPPON GEAR (이폰기어)</b> B&B스포츠	<b>한길스포츠</b> 한길스포츠	<b>미즈노</b> (주)아와라
<b>제우스스포츠</b> 제우스스포츠	<b>아디다스</b> (주)제우인터내셔널	<b>무술사</b> (주)무술사	<b>쿠사쿠라</b> (주)지로드(G-Road)
<b>아와라</b> (주)아와라	<b>카카리</b> 카카리	<b>프로스팩스</b> (주)아와라	<b>파이팅필름</b> 파이팅필름
<b>대명유도복</b> (주)엠코리아(M-KOREA)	<b>KIN</b> (주)다하다	<b>IRON(아이언)</b> (주)엠코리아(M-KOREA)	<b>EXHL(엑스헤일)</b> (주)제우인터내셔널
<b>히로(HIRO)</b> 히로스포츠			

### 유도인동정

### 권오욱·김대남·이춘관 KATA 국제 심판시험 합격

권오욱, 김대남, 이춘관 심판이 3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된 KATA 국제 심판시험(Continental)에 응시해 합격했다.



2026 동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자 명단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

기간 2026년 2월 20일~2월 21일(2일간)

장소 경북, 경운대학교

수료자 569명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원, 명단. Lists participants from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Jeonnam, Jeonbuk, Gyeongnam, Jeju, and Ministry of Justice.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원, 명단. Lists participants from Gyeonggi, Chungnam, Chungbuk, Jeonnam, Jeonbuk, Gyeongnam, Gyeongbuk, Gyeongbuk, and Jeju.

심판 및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수료

기간 2026년 2월 20일~2월 22일(3일간)

장소 경북, 경운대학교

수료자 123명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원, 명단. Lists participants from Seoul and Busan.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원, 명단. Lists participants from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Gwangju, Jeonnam, Jeonbuk, Gyeongnam, Gyeongbuk, and Ministry of Justice.

생활체육 지도자 강습회 수료

기간 2026년 2월 21일~2월 22일(2일간)

장소 경북, 경운대학교

수료자 484명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원, 명단. Lists participants from Seoul, Busan, and Daegu.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원, 명단. Lists participants from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Sejong, Gyeonggi, Gwangju, Jeonnam, Jeonbuk, Gyeongnam, Gyeongbuk, Jeju, and Ministry of Justice.

### 유도 미래국가대표 합숙훈련 실시

#### 2025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2025 이월사업)

**훈련기간** 2026년 1월 11일~1월 24일(13박14일)

**훈련장소** 순천,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

<b>임원(8명)</b>	임희대(꿈나무선수 전담지도자), 강명덕(제주시유도회 코치), 권성훈(신흥초 코치), 신슬기(가남초 코치), 이성균(문선초 코치), 조아라(신철원초 코치), 홍진주(흥덕초 코치), 이동영(익무트레이너)
<b>선수/ 남자(21명)</b>	-36kg 이의리(송남초), 하정후(김재범유도관), 배서준(사복초), 김현성(삼산초) -42kg 정수현(사복초), 조요은(송중초), 차연우(용화초) -48kg 최우현(송중초), 홍상운(동남초), 민서준(YK유도클럽) -54kg 박도윤(사복초), 정웅(용화초), 김지후(에스유도클럽) -60kg 이준수(사복초), 유주원(응암초), 김도윤(GP유도열티집) -66kg 김가운(명천초), 이우주(논산시유도회), 최찬영(부안초) +66kg 최승우(양주고읍유도관), 원동휘(송백유도관)
<b>선수/ 여자(17명)</b>	-36kg 문서아(송중초), 김노을(철원초) -40kg 백서진(송중초), 안소정(홍천유도스쿨), 강예빈(한라유도클럽) -44kg 강서은(동남초), 박지유(사복초), 이하을(철원초), 유하을(서흥초) -48kg 윤경화(신철원초), 이보윤(무곡초), 권도연(광주가점스포츠클럽), 오유림(명덕초) -52kg 이예서(내성초), 김현수(서흥초) +52kg 이보은(김해활천초), 정예은(도천초)

#### 2026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훈련기간** 2026년 1월 25일~2월 11일(17박18일)

**훈련장소** 전북, 익산시 실내체육관

<b>임원(8명)</b>	김현태(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 방귀만(민앤마이노 코치), 현후익(남녕고 코치), 홍승한(한체대 교수), 김슬기(동해시청 코치), 김주연(선문대 감독), 박다운(도개고 코치), 박종명(경북휴먼테크고 코치)
---------------	--



<b>선수/ 남자(28명)</b>	-55kg 조연우(용인대), 이주허(용인대) -60kg 김동준(한국체대), 김상엽(용인대), 엄정현(경민고), 조현우(경북휴먼테크고) -66kg 이재준(용인대), 김승기(용인대), 소울(서울체고) -73kg 김용민(용인대), 김기영(용인대), 홍승운(한국체대), 전민성(신철원고) -81kg 김상규(보성고), 고명성(한국체대), 전민형(신철원고) -90kg 차민호(인하대), 전민석(울산생과고), 전민균(신철원고), 문준서(경민고) -100kg 김경민(송도고), 신민성(용인대), 박근호(경남체고) +100kg 김민준(용인대), 김지용(한국체대), 차봄(마산대), 이진혁(남녕고)
<b>선수/ 여자(28명)</b>	-48kg 이유진(한국체대), 주수림(경기대), 유하늘(영서고), 손예원(서울체고) -52kg 백지호(한국체대), 이소윤(경기대), 박예지(순천미래과학고), 권세현(서울체고) -57kg 박채령(한국체대), 이은지(금곡고), 송가인(경기대), 이채경(서울체고), 문지현(남녕고) -63kg 양지언(용인대), 홍다인(인천체고), 정하림(도개고), 곽유주(남녕고), 최연우(경기체고) -70kg 모수민(한국체대), 신주은(용인대), 강재형(한국체대), 장혜윤(경기체고), 강주은(용인대) -78kg 이재민(인천체고), 김고은(남녕고), 이승주(용인대) +78kg 이승진(도개고), 심지민(충남체고)

### 2026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6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가 2월 26일에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에서는 7단 3명을 비롯해 총 4,452명이 합격하였다.

승단인원			
7단	3명	2단	749명
6단	4명	초단	2,006명
5단	5명	소년3단	18명
4단	26명	소년2단	312명
3단	64명	소년초단	1,265명



## 유도 행정 정보 안내

### 경기인 등록

구분	대상	등록 기간	비고
지도자	감독/코치	상시 등록	① 3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4대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한유도회 또는 지역유도회에서 발행하는 지도자 자격증
			④ 체육지도사 자격증(26년:유예기간/27년부터:필수)
			* 구비서류는 등록 신청 시, 소속 시도지부로 제출 * 유도관 관장의 경우, 대한유도회 등록 도장 우선 승인
선수	전문체육	매년 3~11월 (1~10일 신청)	매월 10일 일괄 승인
	생활체육	매년 3~12월 (1~15일 신청)	매월 5, 10, 15일 일괄 승인
			동호인 확인은 모바일 회원증으로 진행(스포츠지원포털)

### 유도장 등록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수 (①~③ 본인 명의만 유효)

①

전문/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증

②

유도회 발행 지도자 자격증 (1/2급)

③

유도 4단 이상 보유

④

사업자등록증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 경기인 수기 등록

#### 수기등록 신청 대상자

- 14세 미만 외국인 및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외국인
-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기인(내국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아이핀 가입 후 사이트 회원가입 가능)



### 단종 정보 수정

#### 개인정보 정정 요청

- 1 개인정보 확인 서류(초본/신분증)를 대한유도회 공식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2 정정 요청 내용은 이메일 본문에 기재
- 3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재발급 신청 필요

#### 개명 요청

- 1 초본(개명 전 이름 포함)을 대한유도회 공식 이메일로 제출
- 2 개명 요청 내용은 이메일 본문에 기재
- 3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재발급 신청 필요
- 4 개명 시 유도회 홈페이지 탈퇴 후 재가입 필수(기존 ID 사용 불가)

### 이적 신청

구분	필요 서류 (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양식 다운로드)	대회 출전 정지 기간
엘리트	이적동의서(기존팀), 이적팀 지도자 확인서(신규팀)	같은 지역으로 이적 시 3개월 타지역으로 이적 시 6개월
생활체육	이적팀 지도자 확인서(신규)	해당 없음

※ 활동제한 예외: 각급 학년 1학년은 3월 기준 소속으로 즉시 출전 가능  
※ 이적동의서 면제: 1)초등학생 선수 2)같은 지역 내 이적하는 중·고교 선수

### 각종 제·증명 발급

종류	신청 방법	수수료			
		우편	방문	팩스	메일
경기실적증명서 선수등록확인서	스포츠지원포털 또는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증명서 발급	1,000원			
선수증 재발급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선수증 재발급	5,000원(우편 수령시 착불)			
(대)단증 재발급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단증조회 및 재발급 ※ 소단증(14세 미만) 우편발급만 가능	7,000원	3,000원	3,000원	-
단증확인서 발급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단증 조회 및 재발급	6,000원	2,000원	2,000원	-
출전확인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입상확인서(생활체육)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양식 다운로드 → 메일 제출	6,000원	-	2,000원	2,000원
지도실적확인서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온라인서비스 → 양식 다운로드 → 메일 제출 ※ 양식 제출 시 재직증명서 첨부 필수	6,000원	-	2,000원	2,000원

※ 모든 온라인 신청 후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어야 발급이 진행됩니다(신청인, 입금인명 동일 / 상이할 경우 본회로 전화).  
※ 스포츠 지원 포털사이트 내 결제는 모바일/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계좌이체 불가).

수수료 납부 결제 계좌 하나은행 224-910080-77404 대한유도회



청춘양구 2026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26. 1. 9.(금)~11.(일)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체급	1위	2위	3위
<b>유치부</b>			
-25kg 장하은 (봉내유도장)	유단이 (그랜드유도발전)	-	-
+25kg 양예준 (코리야탑유도발전)	손예성 (안철용유도관)	유연준 (양구유도스포츠클럽)	유한결 (청춘유도관속초점)
<b>12세이하부(남초부)(1~2학년)</b>			
-25kg 진연우 (청춘유도관속초점)	정은우 (김재범유도관)	김무건 (봉내유도장)	-
-30kg 이승윤 (안철용유도관)	김선호 (상송유도회관)	최시윤 (청춘유도관속초점)	최지민 (그랜드유도발전)
-35kg 이민혁 (청도유도체육관)	서지율 (안철용유도관)	김산 (오라차처초유도관)	-
+35kg 최현준 (도봉탑유도관)	유시원 (MU유도관)	윤민음 (철원유도관)	조은호 (안철용유도관)
<b>12세이하부(남초부)(3~4학년)</b>			
-30kg 강유준 (안철용유도관)	홍리우 (위대유도관)	이건 (한양대학교체육관)	-
-35kg 이규하 (안철용유도관)	김태민 (김재범유도관)	권세준 (구원유도관)	-
-43kg 정지훈 (청춘유도관속초점)	구다원 (그랜드유도발전)	김도준 (청춘유도관속초점)	박영훈 (민예미노유도덕소점)
-53kg 하창균 (구원유도관)	홍지호 (김재범유도관)	정은을 (김재범유도관)	이수혁 (청도유도체육관)
+53kg 조아론 (MU유도관)	신지훈 (구원유도관)	-	-
<b>12세이하부(남초부)(5~6학년)</b>			
-35kg 임태빈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최유찬 (김항기유도관속초점)	전하율 (양주고음유도체육관)	윤지환 (아시아스포츠클럽)
-43kg 최민준 (도봉탑유도관)	성종민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이서준 (청춘유도(월성동))	장일주 (청춘유도관(구미점))
-53kg 김규민 (구원유도관)	권민건 (청춘유도(월성동))	최건환 (아시아스포츠클럽)	정하림 (구원유도관)
-65kg 김민건 (안철용유도관)	엄수현 (민예미노유도덕소점)	이도윤 (아시아스포츠클럽)	박시율 (코리야탑유도발전)
+65kg 최동현 (공명유도관전주대점)	정서우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이진우 (Judopia이경근유도관)	이우진 (코리야탑유도발전)
<b>12세이하부(여초부)(1~3학년)</b>			
-25kg 염채원 (철원유도관)	이은율 (외와유도장)	-	-
-30kg 김채이 (용인대범유도클럽)	김윤서 (진우도관(성남))	조예진 (양구유도스포츠클럽)	강승연 (우석유도체육관)
-36kg 이미유 (상송유도회관)	이지민 (위대유도관)	김다민 (진우도관(성남))	최아름 (청춘유도스포츠클럽)
+48kg 박솔민 (코리야탑유도발전)	이혜수 (안철용유도관)	-	-
<b>12세이하부(여초부)(4~6학년)</b>			
-36kg 김윤서 (안철용유도관)	김채아 (청명유도관(화성점))	이나은 (안철용유도관)	여다예 (청춘유도스포츠클럽)
-48kg 이예담 (청춘유도관(구미점))	곽민서 (위대유도관)	안채원 (청춘유도스포츠클럽)	황유진 (위대유도관)
-57kg 전민서 (아시아스포츠클럽)	김다영 (도화리유도GYM)	정지현 (청춘유도관(구미점))	WANDJAMS WARI (청도유도체육관)
-63kg 이도의 (진우도관(성남))	김태민 (그랜드유도발전)	이여진 (초천유도스쿨)	황예원 (진우도관)
+63kg 조아윤 (MU유도관)	김예원 (구원유도관)	김태연 (청춘유도스포츠클럽)	이재빈 (우석유도체육관)
<b>15세이하부(남중부)</b>			
-48kg 문주빈 (경수유도클럽)	김성현 (진우도관(성남))	김준우 (구원유도관)	조하림 (경수유도클럽(본점))
-52kg 박강진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조창용 (엘리트유도발전)	단경민 (그랜드유도발전)	윤호림 (오라차처초유도관)
-58kg KIM YEGOR (김재범유도관)	윤민우 (엘리트유도발전)	정한결 (청도유도체육관)	이우찬 (용인대범양주유도관)
-66kg 황진석 (청춘유도(월성동))	이승현 (우석유도체육관)	심세원 (김항기유도관속초점)	박경민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73kg 김준우 (래노유도관)	주호연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박시현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	김도환 (우석유도체육관)
-81kg 최강 (철원유도관)	김의준 (미스타파크해남유도점)	한민우 (SKY유도관)	이종현 (거목유도관)
-90kg 장석진 (탑클래스유도체육관)	이루경 (청명유도관(화성점))	서동민 (초천유도스쿨)	여채영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본점))
+90kg 김재윤 (문산유도체육관)	안용준 (오라차처초유도관)	홍태민 (외와유도장)	김예찬 (공명유도관전주대점)
<b>15세이하부(여중부)</b>			
-42kg 함수민 (양주고음유도체육관)	임지우 (탑클래스유도발전)	정겨움 (진우도관(성남))	김연우 (봉내유도장)
-47kg 한담 (BROS유도관)	권연서 (유사사유도관(남영))	신정인 (진우도관(성남))	배예민 (미스타파크강수유도점(성북점))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2세이하부(남초부)(1~3학년)	오라차처초유도관	안철용유도관A	JNS유도체육관(평택)
12세이하부(남초부)(4~6학년)	코리야탑유도발전	상송유도회관A	탑클로유도발전
12세이하부(여초부)(4~6학년)	부천용인대유도체육관	안철용유도관A	양구유도스포츠클럽
15세이하부(남중부)	미스타파크하남유도점	JNS유도체육관(평택)	JNS유도발전
15세이하부(여중부)	JNS유도체육관(평택)	SKY유도관A	홍천유도스포츠클럽
18세이하부(남고부)	양주고음유도체육관	청춘유도(월성동)	천명유도관A
남일반부	한판유도관(대구)	용인대서대문체육관	탑클로유도발전
여일반부	JNS유도발전	태광유도관	안산유도체육관A

제3회 사천우주항공컵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26. 1. 17.(토)~19.(월) / 경남, 삼천포체육관

체급	1위	2위	3위
<b>유치부</b>			
-20kg 이윤준 (고성유도관)	최서준 (고성유도관)	조허준 (고성유도관)	-
-25kg 정이민 (청양유도관)	박시우 (강현유도관)	안예빈 (세종유도관(보림점))	서하진 (백공유도클럽)
+25kg 손예성 (안철용유도관)	조연준 (청양유도관)	-	-
<b>12세이하부(남초부)(1~2학년)</b>			
-25kg 김도윤 (YK유도클럽)	김세준 (미스타파크해남유도점)	-	-
-30kg 이승윤 (안철용유도관)	김기민 (청송유도관)	박건 (강현유도관)	안도빈 (세종유도관(보림점))
-35kg 서지율 (안철용유도관)	박성민 (강현유도관)	조해운 (용인대MU유도관)	정태민 (코리야탑유도관)
+35kg 박서우 (YK유도클럽)	조범진 (신분유도관)	김민중 (용인대MU유도관)	신도윤 (세이피유도(충촌점))
<b>12세이하부(남초부)(3~4학년)</b>			
-30kg 강유준 (안철용유도관)	윤찬혁 (YK유도클럽)	양시우 (김포청룡유도체육관)	박지안 (프리임유도아카데미)
-35kg 이규하 (안철용유도관)	이연진 (청산유도관)	강태양 (코리야탑유도관)	안하을 (청춘유도관(서면))
-43kg 김태현 (한탄유도관)	박성빈 (포항구남유도체육관)	안호현 (안철용유도관)	강주원 (안철용유도관)
-53kg 서동현 (김포청룡유도체육관)	도종우 (울림택유도관(관저))	배정우 (용인대강대유도관)	김민준 (신수아카데미(월성))
+53kg 김태후 (천주유도관)	박상현 (청원유도클럽(남성점))	김승준 (합동초등학교)	이태율 (백공유도클럽)
<b>12세이하부(남초부)(5~6학년)</b>			
-35kg 이기현 (청원유도클럽(남성점))	이우진 (세이피유도(도당점))	김민준 (경수유도클럽 2호점)	양용재 (합동초등학교)
-43kg 이서준 (청춘유도(월성동))	유승재 (Judopia이경근유도관)	이승민 (세이피유도(도당점))	강현교 (용인대 OX유도체육관)
-53kg 김애우 (서귀포유도관)	이윤준 (비른유도관)	김승후 (유사사유도관(화성))	강윤성 (YK유도클럽)
-65kg 김태민 (안철용유도관)	이현수 (Judopia이경근유도관)	김산일 (YK유도클럽)	김유성 (청원유도클럽(남성점))
+65kg 최동현 (공명유도관전주대점)	최준혁 (포항구남유도체육관)	김리듬 (청춘유도관(남양점))	이진우 (Judopia이경근유도관)
<b>12세이하부(여초부)(1~3학년)</b>			
-25kg 정소율 (천주유도체육관)	이은율 (외와유도장)	-	-
-36kg 진선희 (코리야탑유도관)	김지후 (하도유도발전)	이아임 (청춘유도관(월하점))	-
<b>12세이하부(여초부)(4~6학년)</b>			
-30kg 유도희 (청춘유도관)	이나은 (코리야탑유도관)	소유림 (울림택유도관(관저))	이은재 (외와유도장)
-36kg 이나은 (안철용유도관)	하보림 (유사사유도관(화성))	김효주 (김포청룡유도체육관)	김채아 (청명유도관(화성점))
-48kg 이담희 (위스노유도)	전은기 (청송유도관)	임태윤 (울림택유도관(관저))	김도희 (합동초등학교)
-57kg 이시은 (청양유도관)	배시윤 (상송유도관)	박초아 (안철용유도관)	차세령 (울림택유도관(관저))
-63kg 이여울 (포항구남유도체육관)	우예진 (문산유도점)	-	-
+63kg 최희정 (청원유도클럽(남성점))	박예민 (청춘유도관(월하점))	전혜현 (서울미래체육관)	이승현 (백공유도클럽(본점))
<b>15세이하부(남중부)</b>			
-48kg 김선율 (청명유도관(화성점))	서준혁 (Judopia이경근유도관)	정시우 (강현유도관)	박준우 (영산유도관)
-52kg 김태윤 (대전한성유도관)	최승우 (여수탑클래스유도점)	이상욱 (진해용원유도관)	이호준 (미스타파크해남유도점)
-58kg 안우진 (태평유도관)	김이준 (대전한성유도관)	조우진 (용인대청룡유도관)	이태양 (청명유도관)
-66kg 김시중 (dream of judo) (영덕유도관)	최용준 (기온용인대유도관)	황진석 (청춘유도(월성동))	유지호 (용인대투혼(아주점))
-73kg 이우진 (영산유도관)	박찬호 (GP유도발전(진소하))	임건희 (미르유도관)	왕지원 (안산유도체육관)
-81kg 이종현 (거목유도관)	장준우 (안산유도체육관)	이재원 (안산유도체육관)	김도윤 (청춘유도클럽(남성점))
-90kg 하창현 (YK유도클럽)	김민경 (재일유도관)	박시현 (용인대 OX유도체육관)	신재민 (백공유도클럽)
+90kg 정윤주 (Judopia이경근유도관)	김정안 (청원유도클럽(남성점))	이시후 (신수아카데미(서명점))	차정우 (용인대투혼(아주점))
<b>15세이하부(여중부)</b>			
-42kg 정혜민 (청춘유도관(다시점))	정보윤 (천주유도관)	김효린 (울산상우유도관)	고승연 (목포유도관)
-47kg 공지우 (용인대청룡유도관)	유재은 (Judopia이경근유도관)	주기인 (태평유도관)	유정민 (청명유도관)
-52kg 이슬 (동탄유도체육관)	김시연 (번석유도관)	한담 (BROS유도관)	최은빈 (남광유도관)
-57kg 정은율 (행린유도관)	정하늘 (청명유도관)	김정아 (목포유도관)	조예진 (서울미래체육관)

단체전

종별	우승	준우승	3위
12세이하부(남초부)(4~6학년)	용한유도클럽(남성점)	부산상심유도관	안철용유도관A
12세이하부(여초부)(4~6학년)	용한유도클럽(남성점)	안철용유도관A	-
15세이하부(남중부)	서울미래체육관	안산유도체육관A	고성유도관A
15세이하부(여중부)	대전한성유도관	기온용인대유도관	BROS유도관A
18세이하부(남고부)	안산유도체육관A	청담유도관	미스타파크해남유도점
18세이하부(여고부)	이승원유도관(KATA)	여수탑클래스유도점	미스타파크해남유도점
남일반부	한판유도관(대구)	공주유도관	-
여일반부	서부유도관	안산유도체육관A	-



7단	46274 최선아	155333 임수현	155407 김기현	155481 나희경	155555 이한솔	155629 안치원	155703 임지원	155777 이성범	155851 김서울
12048 김태운	46275 박동선	155334 김 관	155408 김근형	155482 백수영	155556 김병서	155630 최승희	155704 박지호	155778 이태균	155852 임연우
12049 최성욱	46276 조남욱	155335 박준호	155409 김대현	155483 신유림	155557 임준성	155631 손영운	155705 이준범	155779 엄주혁	155853 김지후
12050 이상문	46277 김승협	155336 김준용	155410 이주욱	155484 전경아	155558 박주연	155632 송지중	155706 윤해인	155780 윤현우	155854 이재민
46278 서정민	46278 서정민	155337 노원희	155411 이현진	155485 손화랑	155559 안은진	155633 엄태천	155707 김시훈	155781 채희준	155855 이혁진
46279 문건희	46279 문건희	155338 홍순형	155412 김지훈	155486 윤은서	155560 이남훈	155634 이용비	155708 한성우	155782 장은우	155856 김진우
46280 이희구	46280 이희구	155339 이서연	155413 손창호	155487 강서연	155561 이서준	155635 이서연	155709 이 훈	155783 유선빈	155857 임준지
46281 정재근	46281 정재근	155340 이현석	155414 이호준	155488 김다연	155562 김제유	155636 이수미	155710 최지호	155784 유현서	155858 전민균
46282 김세훈	46282 김세훈	155341 윤나은	155415 진윤익	155489 최윤형	155563 김현수	155637 이채연	155711 장민준	155785 신희상	155859 정병훈
46283 이장석	46283 이장석	155342 지유진	155416 박진선	155490 정가애	155564 최지선	155638 이동연	155712 전민호	155786 김은우	155860 최예린
46284 박선우	46284 박선우	155343 이상준	155417 황기선	155491 배서운	155565 이하영	155639 배지우	155713 이학진	155787 임은선	155861 최재원
46285 김은성	46285 김은성	155344 기운찬	155418 홍진석	155492 이지민	155566 이상화	155640 배재원	155714 김승원	155788 홍예성	155862 한수민
46286 이혜령	46286 이혜령	155345 안정수	155419 김기훈	155493 문예준	155567 노지훈	155641 정재우	155715 최호준	155789 유건호	155863 정성원
46287 한대훈	46287 한대훈	155346 조정재	155420 김강훈	155494 손영현	155568 이지호	155642 정준우	155716 조범수	155790 박주찬	155864 노현재
46288 홍정민	46288 홍정민	155347 김수빈	155421 김진웅	155495 배찬호	155569 강현우	155643 정형욱	155717 한태규	155791 정현민	155865 최혁재
46289 신동훈	46289 신동훈	155348 최영민	155422 변윤섭	155496 김수영	155570 홍준우	155644 조문수	155718 김도현	155792 박세준	155866 윤지섭
46290 박정진	46290 박정진	155349 안도훈	155423 황영인	155497 정성현	155571 박동현	155645 조성하	155719 임우현	155793 박재령	155867 양주정
46291 박선영	46291 박선영	155350 유현우	155424 정건혁	155498 김건우	155572 백민관	155646 양다연	155720 박현서	155794 강승교	155868 박준영
46292 김규석	46292 김규석	155351 김민정	155425 김주창	155499 안오호	155573 최우진	155647 장문길	155721 양우빈	155795 유승민	155869 김태환
46293 김형진	46293 김형진	155352 차인별	155426 심세정	155500 조 운	155574 조이진	155648 손준비	155722 이다영	155796 김지훈	155870 최보현
46294 강동우	46294 강동우	155353 이지훈	155427 김지원	155501 한재원	155575 김동민	155649 김사랑	155723 최지훈	155797 정승운	155871 서우창
46295 김보건	46295 김보건	155354 임승하	155428 석상일	155502 배정병	155576 이성훈	155650 정다혜	155724 이재현	155798 김장섭	155872 권민서
46296 신동인	46296 신동인	155355 박형준	155429 김선우	155503 모수민	155577 임승우	155651 노영완	155725 윤가은	155799 광은선	155873 송천호
46297 이병남	46297 이병남	155356 유호준	155430 김민호	155504 박민서	155578 김승규	155652 강동철	155726 김나운	155800 이화연	155874 한상문
46298 권원규	46298 권원규	155357 김사랑	155431 김창원	155505 김대경	155579 김민지	155653 김의찬	155727 하예린	155801 정시우	155875 신영하
46299 안철민	46299 안철민	155358 김현민	155432 나지성	155506 김민성	155580 이현희	155654 윤채연	155728 정선아	155802 원정준	155876 김민기
46300 김지현	46300 김지현	155359 장원준	155433 박종영	155507 김지혁	155581 광도연	155655 서희수	155729 구본민	155803 홍승화	155877 김민채
46301 이동현	46301 이동현	155360 홍현식	155434 허형석	155508 김문수	155582 허진용	155656 정지민	155730 구자성	155804 하승우	155878 정예영
46302 오상훈	46302 오상훈	155361 최범석	155435 유원철	155509 김상범	155583 장한울	155657 길기현	155731 이은서	155805 안재혁	155879 이현정
46303 권미호	46303 권미호	155362 홍태균	155436 주경제	155510 김도윤	155584 장준하	155658 김부민	155732 주수현	155806 정연재	155880 양우정
46304 박준영	46304 박준영	155363 허태웅	155437 이지원	155511 김수윤	155585 정우성	155659 박기영	155733 오유찬	155807 조승빈	155881 유정화
46305 황새철	46305 황새철	155364 박해균	155438 조준우	155512 이지민	155586 김다나	155660 신선숙	155734 박지연	155808 유다은	155882 한지혜
46306 박지후	46306 박지후	155365 박윤홍	155439 이건호	155513 이상태	155587 박찬희	155661 박찬희	155735 김수미	155809 유한결	155883 임서현
46307 배민규	46307 배민규	155366 유호원	155440 임영재	155514 이상환	155588 정희담	155662 이안민	155736 조성현	155810 박태원	155884 이여원
46308 강철민	46308 강철민	155367 정경근	155441 이정하	155515 최세현	155589 윤세준	155663 송승현	155737 이재원	155811 옥성현	155885 김여진
46309 채나영	46309 채나영	155368 임민서	155442 이주미	155516 김경하	155590 노동해	155664 장진혁	155738 전소윤	155812 김지현	155886 김지현
46310 김영혁	46310 김영혁	155369 유정인	155443 안동혁	155517 문하운	155591 김영재	155665 심준경	155739 김현경	155813 김동관	155887 김소윤
2단	27600 김민수	155370 황소연	155444 송원석	155518 한지연	155592 조세은	155666 조혜민	155740 김수연	155814 김이찬	155888 홍세영
27601 정성일	155298 박우현	155371 이서연	155445 이재호	155519 김찬결	155593 이재희	155667 설혜빈	155741 정하윤	155815 황순혁	155889 김현진
27602 배동석	155299 권혁찬	155372 허충범	155446 손명수	155520 박성현	155594 김구빈	155668 이찬규	155742 이지현	155816 문 범	155890 엄승현
27603 오세희	155300 유하진	155373 이정민	155447 이유로	155521 이순제	155595 이준영	155669 오지훈	155743 최관우	155817 석승주	155891 정근석
27604 서상승	155301 이원우	155374 조영석	155448 방현호	155522 박지현	155596 허재균	155670 박지수	155744 남하영	155818 김혜민	155892 이택원
27605 김문수	155302 정다빛	155375 노현우	155449 강민석	155523 문지환	155597 권호경	155671 김우진	155745 송유진	155819 정래욱	155893 고한울
27606 이원재	155303 이강우	155376 백현경	155450 박준영	155524 김정윤	155598 양근원	155672 김병수	155746 한시은	155820 김병윤	155894 이세현
27607 최민우	155304 김유빈	155377 김동규	155451 장현석	155525 윤가은	155599 송성민	155673 김연준	155747 손종환	155821 손지환	155895 황수비
46247 허 준	155305 정성호	155378 배수현	155452 여환미	155526 손보민	155600 이승민	155674 김대현	155748 안여진	155822 강태희	155896 황소연
46248 이종민	155306 서문주	155379 민승희	155453 정미혜	155527 김민서	155601 박민재	155675 김요한	155749 안소희	155823 서한결	155897 박서진
46249 신정현	155307 나윤호	155380 이현승	155454 최수아	155528 고민규	155602 박시현	155676 이현우	155750 김유빈	155824 이준석	155898 김영빈
46250 오세현	155308 홍정수	155381 조희웅	155455 배신희	155529 박동혁	155603 박소울	155677 김준호	155751 이수현	155825 이대환	155899 이하은
46251 이준호	155309 이상목	155382 서희승	155456 두희주	155530 김소윤	155604 오혜성	155678 전다영	155752 최지우	155900 정연서	155901 안준식
46252 김세훈	155310 양승준	155383 구현욱	155457 조성목	155531 서민경	155605 양수진	155679 김지훈	155753 이동근	155902 구승연	155901 김승연
46253 오재섭	155311 최준혁	155384 오태연	155458 이종민	155532 이준호	155606 박하은유	155680 최현빈	155754 이상원	155903 임서운	155902 임서운
46254 백준석	155312 서동건	155385 채원준	155459 박세웅	155533 정우혁	155607 이다연	155681 정환희	155755 김도겸	155904 김승민	155903 김승민
46255 정연태	155313 서동건	155386 송천일	155460 조완희	155534 임수민	155608 박지후	155682 김종현	155756 홍서현	155905 김민규	155904 김민규
46256 조근호	155314 정로준	155387 임채준	155461 남승재	155535 남자현	155609 김서운	155683 조강현	155757 박지혜	155906 윤지원	155905 윤지원
46257 이민준	155315 정윤서	155388 홍지훈	155462 황민규	155536 박지민	155610 김태호	155684 박서운	155758 이세종	155907 장희용	155906 장희용
46258 김경기	155316 서우주	155389 김태운	155463 서정현	155537 김기대	155611 허대근	155685 김태빈	155759 심우빈	155908 현서진	155907 현서진
46259 김동연	155317 김준서	155390 김재환	155464 서지식	155538 김태형	155612 여진주	155686 김민솔	155760 황선호	155909 정지우	155908 정지우
46260 김기혁	155318 안병민	155391 김우택	155465 배수태	155539 염보민	155613 김민준	155687 차윤호	155761 김동현	155910 김서현	155909 김서현
46261 강정현	155319 유승민	155392 배준성	155466 반승엽	155540 이윤나	155614 이윤호	155688 성용창	155762 조형태	155911 김현진	155910 안준식
46262 이지명	155320 한동근	155393 부승혁	155467 안재현	155541 허민주	155615 김영서	155689 최준민	155763 장준호	155912 하은진	155911 김현진
46263 이정민	155321 허민호	155394 신상영	155468 김현호	155542 심정희	155616 윤채호	155690 이지민	155764 최동민	155913 하은진	155912 하은진
46264 김지원	155322 임효성	155395 양선미	155469 현선오	155543 김세별	155617 장우진	155691 고경표	155765 천주영	155914 김명태	155913 강예지
46265 노홍주	155323 이경민	155396 윤 진	155470 함민상	155544 허수민	155618 지성태	155692 김승호	155766 이윤건	155915 김우진	155914 김명태
46266 윤정현	155324 이지은	155397 최윤서	155471 이소현	155545 김현소	155619 임건하	155693 김현수	155767 오현정	155916 김나현	155915 김나현
46267 전민경	155325 김수영	155398 최윤서	155472 박지수	155546 김예은	155620 김자경	155694 오승훈	155768 이성원	155917 김희수	155916 김희수
46268 박기범	155326 원소영	155399 최희애	155473 안성호	155547 정예진	155621 조원기	155695 한태우	155769 김재연	155918 김희수	155917 김희수
46269 김유경	155327 김소현	155400 유정균	155474 이도현	155548 권민지	155622 기태호	155696 장주주	155770 김도윤	155919 김성록	155918 김성록
46270 조민정	155328 김희진	155401 유정균	155475 서재현	155549 배준보	155623 김수지	155697 윤희균	155771 이한주	155920 최정현	155919 최정현
46271 이강욱	155329 박준서	155402 황병인	155476 지원일	155550 박재은	155624 박준하	155698 문병수	155772 이 창	155921 박준산	155920 최정현
46272 임철준	155330 이치우	155403 조하진	155477 남주형	155551 김은총	155625 고현관	155699 박주영	155773 김민찬	155922 송민섭	155921 송민섭
46273 황병훈	155331 이상재	155404 박현준	155478 김창규	155552 이명진	155626 정예은	155700 김동규	155774 유지나	155923 황용운	155922 황용운
	155332 장민채	155405 김철태	155479 정서민	155553 이은우	155627 영우빈	155701 김희중	155775 이희정	155924 윤진혁	155923 황용운
		155406 양승준	155480 정해민	155554 이승아	155628 김민준	155702 유용현	155776 노기원		

155925 최대풍	155926 이주아	155927 이재영	155928 김나현	155929 김수빈	155930 박세원	155931 박지우	155932 변성은	155933 이도현	155934 이효민	155935 이희정	155936 전수현	155937 조 현	155938 박주찬	155939 이찬호	155940 김세준	155941 임태경	155942 문창균	155943 손승호	155944 한상진	155945 권서운	155946 지수연	155947 김우연	155948 모인호	155949 최민준	155950 김준성	155951 하성백	155952 백성욱	155953 김하영	155954 김대현	155955 정이준	155956 최아영	155957 최기현	155958 조성훈	155959 김지현	155960 김지현	155961 김나현	155962 최부호	155963 최현호	155964 양태환	155965 최성호	155966 양준호	155967 최성호	155968 최정호	155969 최정호	155970 박희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2070 송채연	492144 임우진	492218 김은수	492292 지예원	492367 한정우	492441 함종호	492515 이서연	492589 선단비	492663 이동열	492738 황경국
492071 방이연	492145 허태웅	492219 조우진	492293 호주영	492368 송현진	492442 천원희	492516 광태우	492590 서수현	492664 이지연	492739 김민서
492072 이유리	492146 이재현	492220 장도영	492294 배주홍	492369 윤지영	492443 김승중	492517 방지연	492591 김찬혁	492665 김지우	492740 김태윤
492073 서은호	492147 이승열	492221 최효성	492295 최효상	492370 박정호	492444 빙이건	492518 채명환	492592 김태호	492666 오정연	492741 김건수
492074 서준혁	492148 이도현	492222 명애진	492296 김민성	492371 전윤우	492445 최우찬	492519 임예린	492593 유하윤	492667 김정후	492742 이현민
492075 김나연	492149 전성승	492223 허완	492297 강민성	492372 이재화	492446 권병재	492520 이종혁	492594 송영원	492668 윤야기	492743 이서현
492076 이정현	492150 김동희	492224 한윤안	492298 최여진	492373 정재훈	492447 정지후	492521 이이재	492595 조혁주	492669 박원혁	492744 오현민
492077 박승규	492151 류건욱	492225 채민서	492299 김영찬	492374 김무원	492448 한재준	492522 신재인	492596 염서빈	492670 손순빈	492745 김준현
492078 김도연	492152 구성우	492226 윤준혁	492300 박예은	492375 전영민	492449 박주영	492523 김민준	492597 공수혁	492671 이승훈	492746 박예인
492079 김리운	492153 김동훈	492227 오시혁	492301 김예은	492376 김현호	492450 김범수	492524 조성성	492598 박현재	492672 임승현	492747 임시연
492080 권대영	492154 조준서	492228 전은우	492302 이세빈	492377 김춘성	492451 김도형	492525 박선우	492599 최원준	492674 장재우	492748 문아름
492081 김우현	492155 김서진	492229 박준상	492303 오지윤	492378 김진태	492452 최은화	492526 유건우	492600 김동현	492675 김민성	492749 안윤오
492082 권현우	492156 김정수	492230 박유빈	492304 김윤정	492379 정민우	492453 송연화	492527 이선우	492601 손단우	492676 송민서	492750 권기범
492083 이재은	492157 박기호	492231 이익찬	492305 김시원	492380 이시원	492454 손은혁	492528 전성현	492602 최아람	492677 김하은	492751 손지성
492084 장형진	492158 김대환	492232 송형기	492306 안형준	492381 장지훈	492455 공지윤	492529 윤재원	492603 이재연	492678 장윤성	492752 최서우
492085 유민지	492159 성태현	492233 이예민	492307 김민성	492382 유다영	492456 서하진	492530 이희성	492604 정승주	492679 김지성	492753 이태성
492086 김민경	492160 박하을	492234 박철주	492308 이승찬	492383 정우형	492457 오동현	492531 이지영	492605 박현범	492680 박하은	492754 김건수
492087 이서연	492161 장태욱	492235 강유빈	492309 한석호	492384 이다윤	492458 최혜원	492532 이로이	492606 권대영	492681 정민비	492755 강찬유
492088 최이준	492162 김승현	492236 이정민	492310 정재석	492385 손현석	492459 이지한	492533 원민호	492607 박지호	492682 박도연	492756 김대현
492089 최인호	492163 홍혁기	492237 김주빈	492311 성지호	492386 이재현	492460 박우현	492534 최승호	492608 이지원	492683 장승현	492757 김승준
492090 조성현	492164 박영준	492238 정호영	492312 권혁주	492387 임승훈	492461 최 훈	492535 임태훈	492609 박수민	492684 임광명	492758 김어진
492091 임서민	492165 조승훈	492239 이태성	492313 정원영	492388 이성진	492462 신서정	492536 장지호	492610 권세희	492685 권주성	492759 박준서
492092 이예진	492166 김성태	492240 김지울	492314 이수린	492389 유진오	492463 정아진	492537 박다원	492611 신희준	492686 김백량	492760 박찬은
492093 우정훈	492167 최정란	492241 김도훈	492315 황소영	492390 박찬빈	492464 박민준	492538 이주호	492612 서재혁	492687 이정민	492761 배민준
492094 전서현	492168 김지진	492242 박준서	492316 정 환	492391 이태빈	492465 김동영	492539 천호진	492613 홍세담	492688 임병용	492762 정유석
492095 신은지	492169 손하준	492243 이정찬	492317 최민재	492392 송현서	492466 이은구	492540 서민지	492614 노예담	492689 정영우	492763 조선우
492096 박 건	492170 조지훈	492244 김민찬	492318 김희수	492393 강지윤	492467 박서준	492541 권희연	492615 이연희	492690 임철규	492764 송호빈
492097 문지환	492171 송윤찬	492245 박상기	492319 손에나	492394 장유진	492468 권루비	492542 김예은	492616 박준희	492691 백승주	492765 홍지은
492098 공문정	492172 권세호	492246 윤지성	492320 조희은	492395 이윤찬	492469 김가민	492543 강태웅	492617 성민호	492692 리현지	492766 윤소희
492099 유현식	492173 정주환	492247 김진규	492321 전은오	492396 송태현	492470 김수민	492544 강다은	492618 김예원	492693 유정민	492767 최우림
492100 오창엽	492174 황도건	492248 서승균	492322 정수호	492397 이은호	492471 김수현	492545 조우준	492619 노창주	492694 김정원	492768 이원율
492101 이준영	492175 이재준	492249 윤태연	492323 주정환	492398 서예준	492472 이준희	492546 민재학	492620 윤재태	492695 이은유	492769 김선웅
492102 김종빈	492176 조재윤	492250 최정민	492324 최정환	492399 이정조	492473 이호늘	492547 윤지수	492621 이지훈	492696 한예준	492770 김은재
492103 박성찬	492177 조대석	492251 류승민	492325 장민재	492400 박하은	492474 박근호	492548 홍재윤	492622 정호인	492697 김동민	492771 육민준
492104 김다현	492178 홍수빈	492252 선재학	492326 권도영	492401 이주안	492475 홍재민	492549 정덕환	492623 박준하	492698 장지훈	492772 정재비
492105 손종혁	492179 고보영	492253 조성재	492327 문경석	492402 유민하	492476 전지훈	492550 배선희	492624 윤민호	492699 허도원	492773 김지환
492106 박주영	492180 홍재용	492254 김진권	492328 임승찬	492403 김신재	492477 정예찬	492551 조훈일	492625 이명찬	492700 윤대원	492774 권태원
492107 최윤서	492181 박솔아	492255 박다희	492329 강민지	492404 김위주	492478 김민지	492552 최현영	492626 차우연	492701 조민진	492775 김현서
492108 이승주	492182 오하린	492256 이승현	492330 윤송파	492405 이현재	492479 이수정	492553 권성홍	492627 나예빈	492702 이정욱	492776 장지호
492109 임준우	492183 송혜아	492257 김태모	492331 김현율	492406 최태민	492480 박민서	492554 신동권	492628 조서찬	492703 김용진	492777 장재원
492110 임혜지	492184 하아름	492258 박성준	492332 정윤성	492407 이윤후	492481 김상완	492555 장형운	492629 양원석	492704 김도균	492778 최보원
492111 김지규	492185 송혜비	492259 위영정	492333 이지환	492408 김민정	492482 권도현	492556 김동한	492630 이동희	492705 박원호	492779 정승민
492112 정민우	492186 문채원	492260 문준성	492334 노원준	492409 김여진	492483 이세원	492557 김천록	492631 유찬희	492706 배현경	492780 천수민
492113 이준석	492187 고도연	492261 정나예	492335 이재윤	492410 최형준	492484 한서진	492558 김선호	492632 이승주	492707 이정욱	492781 강태경
492114 장혜은	492188 김다훈	492262 오정진	492336 이정재	492411 김성돈	492485 장서진	492559 이제윤	492633 연하준	492708 박고은	492782 장승용
492115 권영민	492189 장준혁	492263 김도윤	492337 박성우	492412 배가은	492486 박용형	492560 이도윤	492634 서찬규	492709 문수현	492783 노강민
492116 권승현	492190 노예성	492264 편민우	492338 김지하	492413 박가윤	492487 김서현	492561 장동혁	492635 원동규	492710 김유빈	492784 민선우
492117 송형규	492191 배성준	492265 김범준	492339 김휘중	492414 조병산	492488 권도형	492562 김지환	492636 선찬술	492711 홍소희	492785 김성은
492118 김시은	492192 최윤철	492266 최승호	492340 김태인	492415 김시우	492489 김준형	492563 김건우	492637 김 범	492712 김승휘	492786 주현결
492119 손재은	492193 한현우	492267 최승현	492342 이은혁	492416 이동건	492490 지유찬	492564 강솔기	492638 국제호	492713 김강현	492787 이민서
492120 서지환	492194 홍서인	492268 문현정	492343 신정근	492417 조아준	492491 이윤석	492565 문지훈	492639 이서현	492714 박찬영	492788 이우석
492121 김태형	492195 윤정재	492269 조준민	492344 윤건영	492418 조현우	492492 김대현	492566 김성재	492640 이정형	492715 조준우	492789 박민서
492122 김승민	492196 김하은	492270 문성재	492345 민수홍	492419 김수민	492493 김기태	492567 박도은	492641 안성형	492716 김영성	492790 김효민
492123 이두하	492197 신재원	492271 이승찬	492346 김동하	492420 박보미	492494 김준서	492568 임예준	492642 심민주	492717 박준우	492791 박광흠
492124 김진디	492198 손우창	492272 문수완	492347 김윤수	492421 이수성	492495 최바람	492569 김찬호	492643 최인찬	492718 최재혁	492792 박정희
492125 이지훈	492199 김경민	492273 문현우	492348 박찬빈	492422 김정훈	492496 정재현	492570 김윤호	492644 신승철	492719 정제현	492793 이구연
492126 여 원	492200 허민성	492274 이주형	492349 송지호	492423 김성휘	492497 김형선	492571 정재현	492645 박덕정	492720 이지후	492794 이민형
492127 권은비	492201 김민준	492275 이주호	492350 신희찬	492424 박지은	492498 박진희	492572 김지훈	492646 김강탁	492721 정승민	492795 원태연
492128 권준우	492202 권준연	492276 김현수	492351 윤용중	492425 송혜령	492499 김현민	492573 유한진	492647 최원준	492722 강민준	492796 김대영
492129 배현빈	492203 박산희	492277 정지훈	492352 임선묵	492426 정한새	492500 송지훈	492574 남현승	492648 윤준혁	492723 윤태호	492797 정재원
492130 김태환	492204 윤지훈	492278 김서연	492353 황예성	492427 최성훈	492501 김태현	492575 정서연	492649 방주은	492724 강현욱	492798 김현준
492131 박서민	492205 김선하	492279 최정규	492354 최상인	492428 강승훈	492502 변승우	492576 홍선우	492650 이주원	492725 이지민	492799 박서진
492132 최민기	492206 박신우	492280 최서연	492355 박지우	492429 유 건	492503 안연우	492577 박범수	492651 박정우	492726 최규화	492800 김준호
492133 김도완	492207 노유진	492281 양승혁	492356 박민재	492430 김승민	492504 박준성	492578 김승기	492652 유나현	492727 홍세현	492801 김시현
492134 문민성	492208 탁준희	492282 박찬민	492357 유병봉	492431 남궁은찬	492505 김민우	492579 송현주	492653 유하얀	492728 김동영	492802 리라은
492135 조승호	492209 김규창	492283 박진웅	492358 이재민	492432 손재재	492506 노예람	492580 강예린	492654 김태원	492729 김대영	492803 천석민
492136 박지민	492210 황윤석	492284 이수연	492359 김태현	492433 양우택	492507 김현유	492581 오세솔	492655 유영일	492730 심지원	492804 박상민
492137 손현우	492211 홍유진	492285 김재아	492360 강성민	492434 서범석	492508 조범수	492582 홍정우	492656 김덕근	492731 이하은	492805 김준우
492138 김건 권	492212 박소희	492286 정재윤	492361 최현학	492435 최재상	492509 박동민	492583 김준혁	492657 서동민	492732 오예성	492806 박지후
492139 김치연	492213 이상근	492287 김하은	492362 최영민	492436 은승민	492510 김동준	492584 김윤아	492658 임채선	492733 김진영	492807 전기선
492140 김예갈	492214 이주황	492288 서승호	492363 조우경	492437 김서현	492511 이서현	492585 김혜진	492659 장동훈	492734 김수현	492808 한성현
492141 김담철	492215 하준성	492289 유주영	492364 이한서	492438 송민규	492512 김시현	492586 광민재	492660 김태윤	492735 윤준호	492809 정은찬
492142 오혜원	492216 최민준	492290 이기택	492365 김우혁	492439 이우정	492513 최이인	492587 하은호	492661 김민성	492736 윤휘산	492810 신승호
492143 구민정	492217 유민호	492291 장나윤	492366 박지호	492440 김수현	492514 김문성	492588 이다예	492662 안현우	492737 임동현	492811 이영민

492812 백지원	492886 조진우	492960 최수빈	493034 안주원	493108 정우혁	493182 박성찬	493256 임소연	493330 안예준	493404 노은비	11824 강은지
492813 정현학	492887 최주영	492961 황서현	493035 정도현	493109 김수진	493183 신현규	493257 임민서	493331 최병준	493405 김하준	11825 임다혜
492814 김민범	492888 하태훈	492962 조동민	493036 김태연	493110 김재우	493184 맹성훈	493258 정다은	493332 김태영	493406 김우진	11826 김다견
492815 김준선	492889 김건중	492963 김서연	493037 장성민	493111 김수환	493185 김수환	493259 정소율	493333 김태희	493407 이예담	11827 김하나
492816 김태민	492890 광동현	492964 공민수	493038 이현주	493112 김환수	493186 김동현	493260 정은비	493334 박준희	493408 김준경	11828 정래아
492817 박성욱	492891 도현서	492965 류하영	493039 공지우	493113 박주환	493187 박정연	493261 조유나	493335 송하은	493409 정유은	11829 유은서
492818 조정복	492892 김근후	492966 송화현	493040 김도연	493114 유연우	493188 유연재	493262 구제훈	493336 오채희	493410 장봉호	11830 김민건
492819 조현석	492893 공도현	492967 조다빈	493041 박설희	493115 정원재	493189 방승준	493263 권도한	493337 이서윤	493411 심준서	11831 정혁준
492820 김정훈	492894 윤혜미	492968 김윤지	493042 김태현	493116 최지안	493190 서은희	493264 김규민	493338 이채우	493412 박세준	11832 박세훈
492821 박정민	492895 김애린	492969 신예린	493043 김민경	493117 이영호	493191 서찬혁	493265 신현호	493339 장윤선	493413 김근호	

11898	김주완	11972	박영훈	12046	박성준	12124	도시현	61883	최동하	61957	이은채	62031	이서울	62105	박주원	62179	우민재	62254	김서준	62329	임태운	62404	이하준	62479	전서윤	62554	최 불	62629	김희윤	62704	황 현	62779	이동원	62854	김은샘	62929	이래은	63004	최준석
11899	오정우	11973	이소이	12047	김채이	12125	백주환	61884	남서진	61958	김태현	62032	전희경	62106	정우빈	62180	김시후	62255	전우희	62330	김용준	62405	한마음	62480	이태규	62555	이호정	62630	반수연	62705	김도훈	62780	박지훈	62855	이선우	62930	남현후	63005	문서준
11900	박성혁	11974	허지후	12048	조하준	12126	고주환	61885	전혜원	61959	민준현	62033	이현준	62107	김윤환	62181	김지호	62256	김정희	62331	이은호	62406	이정호	62481	양주현	62556	최연두	62631	이예준	62706	유지환	62781	손가윤	62856	이예민	62931	남시우	63006	조연준
11901	심시후	11975	지서현	12049	고수	12127	고주빈	61886	조민형	61960	손재용	62034	이다원	62108	조정우	62182	조성우	62257	안현호	62332	신은진	62407	이산	62482	김승현	62557	곽동민	62632	이현울	62707	이준우	62782	이연우	62857	이재율	62932	조이준	63007	정주환
11902	이우형	11976	지민서	12050	황인호	12128	백건우	61887	최하연	61961	신유빈	62035	박세현	62109	강동재	62183	노도윤	62258	김강우	62333	정영웅	62408	배은우	62483	전시아	62558	김한빈	62633	김규민	62708	이정우	62783	신가윤	62858	정원명	62933	김민호	63008	배준영
11903	이두형	11977	오지형	12051	이다해	12129	김민석	61888	장시우	61962	이성우	62036	조은규	62110	조연우	62184	신윤서	62259	김현준	62334	이시우	62409	송태아	62484	신예준	62559	도지영	62634	김동하	62709	이나윤	62784	조윤서	62859	박민찬	62934	노승현	63009	홍태경
11904	전시울	11978	김승현	12052	원선우	12130	남중홍	61889	안승우	61963	이진서	62037	이성현	62111	김민규	62185	남윤성	62260	노유주	62335	이소은	62410	문정환	62485	이요셉	62560	김대휘	62635	김예찬	62710	강승연	62785	천이안	62860	허예원	62935	정중호	63010	전지후
11905	조은준	11979	이정윤	12053	정희성	12131	전상원	61890	윤지우	61964	정성원	62038	김 산	62112	엄예준	62186	정서울	62261	김태연	62336	황주희	62411	장시은	62486	노다나	62561	이주원	62636	이인호	62711	박민규	62786	권수아	62861	정현진	62936	임승준	63011	이루다
11906	엄혜성	11980	임영훈	12054	이호주	12132	김휘태	61891	윤하람	61965	최가은	62039	김혜민	62113	도유준	62187	신서연	62262	윤 준	62337	박은솔	62412	김민겸	62487	김호란	62562	오연우	62637	임우성	62712	홍도현	62787	김여울	62862	윤재찬	62937	박지민	63012	이로운
11907	손지연	11981	김도준	12055	박선진	12133	윤수현	61892	강재준	61966	김태민	62040	손아림	62114	박진수	62188	홍태승	62263	조우택	62338	최은솔	62413	원호연	62488	이진영	62563	이유준	62638	최수호	62713	오서연	62788	이준명	62863	김재민	62938	손주형	63013	고준우
11908	정유찬	11982	김우건	12056	정예원			61893	김태이	61967	이준우	62041	김수련	62115	김현성	62189	박은찬	62264	손성욱	62339	이시원	62414	차한결	62489	장다운	62564	유우주	62639	김도영	62714	서민건	62789	김민결	62864	고준희	62939	박수빈	63014	박준영
11909	서명재	11983	박시원	12057	김민채			61894	강지우	61968	이하늘	62042	김원영	62116	이승민	62190	김대우	62265	이영택	62340	정찬	62415	조윤후	62490	윤서후	62565	임창빈	62640	임재준	62715	김도건	62790	남연우	62865	강나현	62940	최은호	63015	구관민
11910	김찬욱	11984	우주형	12058	송수진	61821	김범준	61895	이권형	61969	서정빈	62043	김은범	62117	김민성	62191	김미소	62266	허이준	62341	심진우	62416	임지훈	62491	김다운	62566	임보민	62641	도유찬	62716	박서연	62791	김채원	62866	조무결	62941	정윤우	63016	정윤우
11911	김규빈	11985	지은호	12059	윤인후	61822	이현우	61896	김도진	61970	김우솔	62044	전지범	62118	장성혜	62192	오원석	62267	이시후	62342	김민주	62417	박지호	62492	김진우	62567	김루아	62642	백재준	62717	배찬서	62792	김주안	62867	강윤서	62942	이시은	63017	조영민
11912	최유인	11986	이준희	12060	허정훈	61823	박소연	61897	서윤호	61971	김준우	62045	설예준	62119	김가을	62193	류승범	62268	손예지	62343	국태인	62418	류라은	62493	윤한빈	62568	심영후	62643	김도현	62718	정종빈	62793	배준열	62868	박지수	62943	김서진	63018	노유성
11913	김동욱	11987	이서진	12061	정윤기	61824	조우사	61898	최동환	61972	김동현	62046	정윤희	62120	신다연	62194	정지성	62269	정준모	62344	조용상	62419	이윤재	62494	이예진	62569	오현서	62644	소현우	62719	채지솔	62794	박태수	62869	김서울	62944	권우원	63019	김다윗
11914	박지훈	11988	유현지	12062	권혁문	61825	김서하	61899	김영지	61973	이소윤	62047	허예린	62121	전하늘	62195	이수아	62270	정준후	62345	채광일	62420	박서후	62495	이정윤	62570	장지준	62645	최서윤	62720	김하은	62795	박은진	62870	이상원	62945	박경준	63020	박수예
11915	라연아	11989	김 현	12063	강동훈	61826	김초하	61900	염준결	61974	정지오	62048	양종인	62122	최은호	62196	주아인	62271	최수진	62346	박소은	62421	김민성	62496	김효준	62571	최하람	62646	김지수	62721	김현기	62796	박은찬	62871	이태호	62946	유아라	63021	서지영
11916	오승민	11990	정보민	12064	박시울	61827	김지아	61901	차주아	61975	최준혁	62049	오요한	62123	김명철	62197	유효훈	62272	송지효	62347	이대한	62422	박재준	62497	김하린	62572	김정현	62647	박지훈	62722	박은준	62797	김다운	62872	김승현	62947	고산하	63022	심진우
11917	김승후	11991	이채빈	12067	박서우	61828	홍이수	61902	유하늘	61976	노희준	62050	변유성	62124	유현철	62198	나유리	62273	김선솔	62348	한정수	62423	김정수	62498	전유담	62573	김호주	62648	백예성	62723	김도성	62798	김다울	62873	조은현	62948	박건	63023	김시우
11918	권민준	11992	김승준	12068	민재원	61829	임준범	61903	유지환	61977	허치찬	62051	사민혁	62125	김규백	62199	김우빈	62274	임태건	62349	최승원	62424	박지현	62499	곽태성	62574	김예건	62649	이서준	62724	노을빈	62799	한재영	62874	이길원	62949	오승훈	63024	김률리바
11919	육건우	11993	장민혜	12069	원준혁	61830	최규철	61904	정민결	61978	손다운	62052	임시현	62126	강은수	62200	김재원	62275	강요희	62350	양윤성	62425	김연혁	62500	김리우	62575	진수형	62650	영루한	62725	국승진	62800	한인찬	62875	정우진	62950	오승재	63025	박주원
11920	이연준	11994	김승후	12070	권서량	61831	김영혁	61905	이희준	61979	김서우	62053	강지안	62127	김민준	62201	양 별	62276	성준희	62351	신지안	62426	신지현	62501	윤효경	62576	김진서	62651	정정민	62726	문가인	62801	심예은	62876	이서연	62951	박하준	63026	조유안
11921	양이안	11995	이준	12071	김우중	61832	이재혁	61906	박태양	61980	정성훈	62054	이예서	62128	정민준	62202	문다민	62277	박시우	62352	고태웅	62427	이서준	62502	정원준	62577	서하울	62652	김유진	62727	장수현	62802	박하은	62877	임재윤	62952	박하울	63027	전하림
11922	이강준	11996	홍우재	12072	박세현	61833	함지호	61907	박주하	61981	김민준	62055	고민서	62129	박재영	62203	이예현	62278	김민결	62353	이충렬	62428	최시우	62503	안은비	62578	김도윤	62653	이주원	62728	이하람	62803	이예민	62878	서유희	62953	김하람	63028	이예성
11923	박윤서	11997	도서현	12073	장한빛	61834	박세호	61908	노유준	61982	김승준	62056	박시은	62130	윤시현	62204	유도경	62279	박수혁	62354	송준혁	62429	오예린	62504	송준하	62579	김정민	62654	이우주	62729	이태수	62804	채수아	62879	엄 건	62954	송민준	63029	장영우
11924	홍용기	11998	장하준	12074	권민희	61835	조건희	61909	이영민	61983	김현오	62057	권민혁	62131	김 휘	62205	이가은	62280	성시호	62355	국민재	62430	김강민	62505	이주원	62575	김현우	62655	김동완	62730	이찬솔	62805	정민영	62880	이서연	62955	김지우	63030	이하준
11925	박민준	11999	이소현	12075	지선재	61836	김다운	61910	백가람	61984	조명빈	62058	심승보	62132	이주연	62206	김도영	62281	유지안	62356	양다아	62431	유강우	62506	정은우	62576	차오원	62656	이예원	62731	양승선	62806	김민아	62881	한지원	62956	구수경	63031	이우진
11926	서채민	12000	이준서	12076	백 우	61837	김준영	61911	김주하	61985	양수현	62059	허 휘	62133	최민우	62207	김우빈	62282	이현준	62357	고우혁	62432	조연호	62507	차오원	62577	타지웅	62657	박주원	62732	신윤우	62807	조예린	62882	김유진	62957	김도영	63032	문이삭
11927	이은채	12001	김지수	12077	김 건	61838	박시우	61912	최민준	61986	송서현	62060	황예준	62134	류운주	62208	박준성	62283	임선우	62358	윤도훈	62433	박지나	62508	김준우	62578	김준우	62658	서태린	62733	송도균	62808	안유빈	62883	전성민	62958	김도진	63033	최무진
11928	박건	12002	원준연	12078	김연수	61839	이윤호	61913	김도울	61987	현승주	62061	김동현	62135	오무성	62209	정 범	62284	차세원	62359	송주규	62434	이승현	62509	이효원	62579	김준우	62659	서태린	62734	송도균	62809	안유빈	62883	전성민	62959	김도진	63034	최무진
11929	문시후	12003	이성민	12079	김준우	61840	노 울	61914	고도연	61988	양민호	62062	조연우	62136	조윤후	62210	정 범	62285	안가람	62360	김민규	62435	권도윤	62510	이효원	62580	김준우	62660	김수현	62735	송도균	62810	이은송	62884	이재원	62960	김지후	63035	이승준
11930	김시후	12004	김태운	12080	장주혁	61841	이준서	61915	김도현	61989	전종훈	62063	최하윤	62137	권순재	62211	정지호	62286	송성현	62361	최예진	62436	이재민	62511	김지훈	62581	김준우	62661	이재원	62736	정우준	62811	유은송	62885	오현서	62961	김지후	63036	김동준
11931	엄시후	12005	강준서	12081	백지훈	61842	김서환	61916	김리현	61990	구도윤	62064	배은솔	62138	표승우	6																							



암웨이의 진심 더블엑스

# 딱 하나의 영양제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신의 그 생각을 알기에 [더블엑스]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정도를 넘어, 지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 조합은 무엇인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많은 영양소를 넘어, 좋은 영양소를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영양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포뮬러]  
[원재료의 영양을 담아내기 위한 뉴트리라이트 컨센트레이션 테크놀로지]  
[뉴트리라이트 자체 건강 연구소 + 약 2,400만㎡ 이상의 광대한 자체 생태계농장]

당신을 위한 ‘딱 하나의 영양제’가 되기 위한 생각,  
[더블엑스]의 진심입니다.

#딱\_하나의\_영양제 #영양제를\_딱\_하나만\_고른다면  
#뉴트리라이트\_과학의\_결정체  
#한국인의\_건강공식 #한국인\_맞춤\_영양\_설계

더블엑스™



연말정산 준비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신한은행 IRP로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적립금자산 평가액 5천만원 이상이며, 전자금융으로 가입/전환한 경우)  
단,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이 퇴직연금예금에 따라 예금보통 대금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한도) 보호됩니다. \*개인형IRP의 수수료는 후취 연 0%~0.45%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용/자산관리 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연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시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윤법감시인 사점심사필 제2025-15522-1호(2025.12.08~2026.12.0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5-05260호(2025.12.09~2026.12.08)



J U D O



아디다스 컴뱃스포츠  
**ADIDAS COMBAT SPORTS KOREA**

WEBSITE : [www.acskorea.co.kr](http://www.acskorea.co.kr)  
INSTAGRAM : @acskorea\_judo  
TEL : 02-3019-3808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주)큰산컴퍼니**

TEL : 010-7557-1371  
ADD : 부산 남구 대연동 243-7



**주도코리아 유도복**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57, 9층